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이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해양스포츠 참여계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관한 연구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이 호

이 학 박 사 학 위 논 문

해양스포츠 참여계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관한 연구



2011년 2월

부 경 대 학 교 대 학 원

체 육 학 과

이 호

李 浩의 理學博士 學位論文을 認准함.

2010年 2月 25日



목차

I.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 목적	4
3. 연구 모형 및 가설	5
가. 연구모형	5
나. 연구 가설	6
4. 용어의 정의	8
가. 해양스포츠	8
나. 참여제약	8
다. 참여동기	8
라. 인지된 가치	9
마. 참여 후 행동	9
5. 연구절차	10
6. 연구 범위	12
II. 이론적 배경	13
1. 해양스포츠	13
가. 해양스포츠의 개념	13
나. 해양스포츠의 유형	15
다. 해양스포츠 현황	18
2. 참여제약	19
가. 참여제약 개념	19

나. 참여제약의 유형	21
3. 참여동기(motive)	26
가. 참여동기의 개념 및 특성	26
나. 참여동기의 분류	28
다. 참여동기 관련 선행연구	33
4. 인지된 가치	35
가. 인지된 가치의 개념	35
나. 인지된 가치의 측정	38
5. 참여 후 행동	40
가. 참여 후 행동의 개념	40
나. 참여 후 행동 관련 연구	45
III. 연구방법	47
1. 조사대상	47
2. 조사도구	49
가. 조사도구의 구성	49
3. 조사절차	52
4. 자료처리	52
5. 타당성 및 신뢰성 검토	53
가. 참여제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54
나. 참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57
다. 인지된 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60
라. 참여 후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61
IV. 연구결과	63

1. 구성개념의 기초통계량	63
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계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차이	64
가.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계약	64
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 동기	69
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지된 가치	76
라.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 후 행동	78
3. 참여계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81
4.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86
5.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88
 V. 논의	 89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계약, 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	89
2. 참여계약과 참여동기	94
3. 참여동기와 인지된 가치	96
4. 인지된 가치와 참여 후 행동	97
 VI. 결론 및 제언	 99
1. 결론	99
2. 제언	102
 Abstract	 103
참고문헌	107
부록 : 설 문 지	121

표 목차

<표 2-1> 해양관광 및 해양스포츠의 유형구분	16
<표 2-2> 해양스포츠 유형구분	17
<표 2-3> 해양스포츠 유형별 분류	17
<표 2-4> 해양스포츠 참여 인구 추이	18
<표 2-5> 연구자별 참여제약의 유형과 개념 분류	23
<표 3-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8
<표 3-2> 측정도구의 구성	49
<표 3-3> 참여제약에 대한 설문문항	55
<표 3-4> 참여제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56
<표 3-5> 참여동기에 대한 설문문항	58
<표 3-6> 참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59
<표 3-7> 인지된 가치에 대한 설문문항	60
<표 3-8> 인지된 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61
<표 3-9> 참여 후 행동에 대한 설문문항	62
<표 3-10> 참여 후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62
<표 4-1> 기초통계량	63
<표 4-2> 월 소득에 따른 참여제약	65
<표 4-3> 참여종목에 따른 참여제약	66
<표 4-4> 주당 이용횟수에 따른 참여제약	67
<표 4-5> 이용시간에 따른 참여제약	67

<표 4-6> 이용경력에 따른 참여계약	68
<표 4-7> 직업에 따른 참여계약	69
<표 4-8> 월 소득에 따른 참여동기	70
<표 4-9> 참여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71
<표 4-10> 주당 이용횟수에 따른 참여동기	72
<표 4-11> 이용시간에 따른 참여동기	73
<표 4-12> 이용경력에 따른 참여동기	74
<표 4-13> 직업에 따른 참여동기	75
<표 4-14>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된 가치	77
<표 4-15>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참여 의도	79
<표 4-16>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전 의도	80
<표 4-17> 참여계약에 대한 다중공선성 검정	81
<표 4-18> 참여계약이 컨디션/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82
<표 4-19> 참여계약이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	83
<표 4-20> 참여계약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84
<표 4-21> 참여계약이 기술발달에 미치는 영향	84
<표 4-22> 참여계약이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85
<표 4-23> 참여동기에 대한 다중공선성 검정	86
<표 4-24>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87
<표 4-25>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88

그림 목차

<그림 1-1> 연구모형	5
<그림 1-2> 연구절차	10



해양스포츠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관한 연구

이 호

부경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요 약

이 연구는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송정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과 경남(창원, 진주, 사천, 거제도)을 직접 방문, 세일링요트 모터요트 수상스키 등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참여자(동호인) 총 459명을 대상으로 연구자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이뤄졌다.

신뢰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라고 표현한다. 신뢰성은 어떠한 측정대상을 반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얻은 측정 결과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측정 방법에는 재검사법, 반분법, 내적일관성 등이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을 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기법(Exploratory factor analytic technique)을 이용하여, 응답자 459명에게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대한 문항을 varimax 방법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구해 사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응답자들의 인구통계를 빈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 요인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지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따라서 통계프로그램을 SPSS 12.0를 사용하여 검토한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특성 중, 이용횟수가 주 2회, 직업은 기타, 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제약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참여제약에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참여제약은 이용횟수나, 이용시간에 따라 참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나 기본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동기에서는 컨디션, 건강/체력, 즐거움, 기술발달에서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은 컨디션회복이나, 건강/체력이나 즐거움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해양스포츠의 기술발달 등에 따라 해양스포츠를 이용했다. 이러한 참여동기는 해양스포츠가 현대인들의 스트레스 해소 및 취미생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의 인지된 가치가 높다는 것은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를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받게 됨을 나타냈다. 결국 해양스포츠의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의 참여를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 하는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한 번의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일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해양스포츠의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참여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참여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자신의 참여욕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느끼는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내재적 제약이 참여동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내재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쉬운데, 이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개인은 일상으로부터의 탈피하고자 하는 동기나 개인의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의욕 등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일상생활로부터의 탈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시간에 대한 제약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면, 해양스포츠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셋째, 참여동기는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참여동기가 강한 개인일수록 인지된 가치도 높아진다. 컨디션 회복이나, 건강·체력, 즐거움을 위한 동기가 높은 개인들은 해양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특히 컨디션회복을 하거나, 건강·체력이 좋아지고, 해양스포츠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해양스포츠를 통해 나온 인지된 가치는 참여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지된 가치가 높으면 참여 후 행동, 즉 재참여 의도나 구전의도가 높아진다.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 이용 후 혜택을 얻게 되며, 이러한 혜택을 얻은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려 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참가로 이어진다. 개인적 참여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 해양스포츠의 가치를 전달하고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게 된다. 즉, 개인이 얻은 혜택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고 이는 구전의도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현대를 살아가는 21세기의 사람들은 급격한 사회발전으로 인해 운동이 부족하며, 이에 따라 많은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다. 그렇지만 2011년 7월부터 전면 실시되는 주 2일 휴무제는 개인의 여가시간 또한 증가될 것이고, 이에 증가하는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의 여가활동을 즐기며, 개인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 또한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했다.

실제로 최근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 또한 과거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과거에는 주말이나 휴일을 단지 일을 마치고 가족과 근교로 산책을 하거나, 집에서 휴식을 취하며 피로했던 몸의 긴장을 풀어주는 시간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소득수준의 향상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사람들의 자유시간이 증대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여가활동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하였다(고재곤, 왕석우 2005).

여가활동에 있어 스트레스 해소와 건강 유지, 사회적 유대관계 증진 등의 이유로 기존의 직접 참여하지 않고 참관하는 여가에서 직접 체험하고 참여하는 여가생활로 전환되고 있다. 그로 인해 각종 여가스포츠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지리적 환경의 접근 용이성으로 인해 해양스포츠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지삼업, 2003). 이러한 해양스포츠의 수요에 발맞추어 정부에서는 국가정책 사업으로 전국에서는 많은 해양스포츠 각종(마리나·보트계류장·다기능어항) 전진기

지들이 속속 재개발되거나 개발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빈(2010)의 연구에 따르면 2009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는 16개소의 중·소규모의 각종 해양스포츠 전진기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부족한 전진기지 확보를 위해 정부는 오는 2019년까지 총 43개소의 각종 해양스포츠 전진기지를 재개발하거나, 또는 개발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마리나들의 증가는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동호인들이나 개인에게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향상시키고, 또한 지금껏 해양스포츠를 접해보지 못한 일반인에게도 해양스포츠에 직접 참여해 볼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조성되는 등 각종 전진기지가 다수 개발됨으로써 대중의 해양스포츠 활동의 기회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다(지삼엽 등, 2010).

한 편으로 해양스포츠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육체적·정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의 항목에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탈 물질주의적 가치관 확립효과 등 여러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완전스포츠라고 볼 수 있다(지삼엽, 2003).

선진국의 경우, 해양스포츠가 친수공간의 확보와 더불어 대중적 인기를 누리왔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참여자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생태환경의 원천인 해양공간자원은 인구의 증가, 경제 및 과학기술의 발전 등에 따라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미래공간으로 각광 받고 있는 가운데 주거, 산업, 관광 및 레저 활동 등 다양한 측면에서 제 2의 국토공간으로 개발할 필요성 역시 증대되고 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간들은 물리적·심리적·사회적 측면에서 환경적 제약 아래에서 생활하고 있다.

Kelly & Godbey(1992)는 여가활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제약조건들을

없애기보다는 경감시키는 것이며, 자유를 만끽하기 위한 활동으로 인위적으로 게임의 규칙을 정하거나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들을 만나는 것 등을 통해 새로운 제약 조건들을 오히려 만들어 나감을 즐길 수도 있다고 하였다. 여가 활동의 참여제약 요인은 접근성, 관심, 시간제약, 개인의 건강, 시설이나 프로그램의 이용, 기타 범죄에 대한 두려움, 기술의 부족, 혼잡성, 교통의 편리성, 재정적 문제, 시설의 불편, 노후성, 참여시간대의 적합성, 정보의 부족, 파트너의 부재 순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의 제약 요인을 규명하고 있다(이승구, 2001). 이러한 각종 스포츠 활동의 참여제약 요인은 해양스포츠의 참여제약요인과 일맥상통한 것이며, 참여제약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통해 참여자들의 참여동기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해양스포츠의 인기와 활성화에 저해되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저해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정호권(2006)은 “내재적, 인간상호적 참여제약이 레저 활동 지속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고, 김성훈(2006)은 레저스포츠 활동에 있어서 신체적 심리적 부담감, 시간부족, 비용부족 등의 참여제약 요인이 참여지속욕구와 부정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였다. 즉,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 태도, 성격,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외적인 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어떤 제약을 받는지를 구명(究明)한다면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에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이 느끼는 재미와 즐거움의 요소,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스포츠 참여동기의 이론적 틀은 인간의 행동을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에 의해 유발 될 수 있다”(Deci, 1975, Deci& Ryan 1985)는 주장과 운동에 참여하는 동기들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주요 동기로는 즐거움, 성취감, 컨디션, 사교, 외적과시, 기술발달 등이 확인되고 있다”(배영훈, 2007)는 연구결과들이 있으며, 이러한 연구들

을 통해 참여동기에 대한 개념들을 정리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 참여에 있어 참여동기와 참여제약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상호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Witt(1992)의 연구에서 “여가활동 참여에 있어서 제약요인과 동기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것이 의사결정과정에서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Alexandris, Tsorbatzoudis & Grouios(2002)는 동기가 제약요인과 참여 사이에 매개 역할을 담당하며 제약요인이 동기에 선행한다는 모델을 통해 제약요인과 동기간의 관련성을 제시한 바 있다.

Oldridge(1982)는 지속적 스포츠 참여에 대해 참여하는 개인의 스포츠 참여율의 저하에 관계없이 지속적 스포츠 참여자로 간주할 수 있으나 중도탈락은 스포츠 프로그램에 더 이상 참여하지 않은 개인만을 지칭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고 다시 재이용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이러한 지속적 참여는 만족이나 동기를 수반하게 된다.

또한 해양스포츠와 관련한 재방문과 구전의도와 관련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재방문이나 구전의도에 대한 연구 선행변수들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태영(2007); 전재균, 최도석, 김미숙(2008); 지삼엽, 이재빈(2009); 이재빈, 배영훈, 지삼엽(2009); 이재빈, 2010; 지삼엽, 이재빈, 이호, 임재현, 김정철(2010)).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의 참여동기를 방해하는 참여제약을 찾고 이러한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를 통해 참여 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연구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행동 패턴을 파악하여 해양스포츠의 발전 및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먼저, 참여자들의 참가를 제약하는 요인들을 파악하는데 있다. 또한 참여제약 요인들이 참여자들의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인지된 가치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인지된 가치의 정도에 따라 향후 참여자들의 행동(재참여 및 구전의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각각 파악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은 참여동기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셋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는 인지된 가치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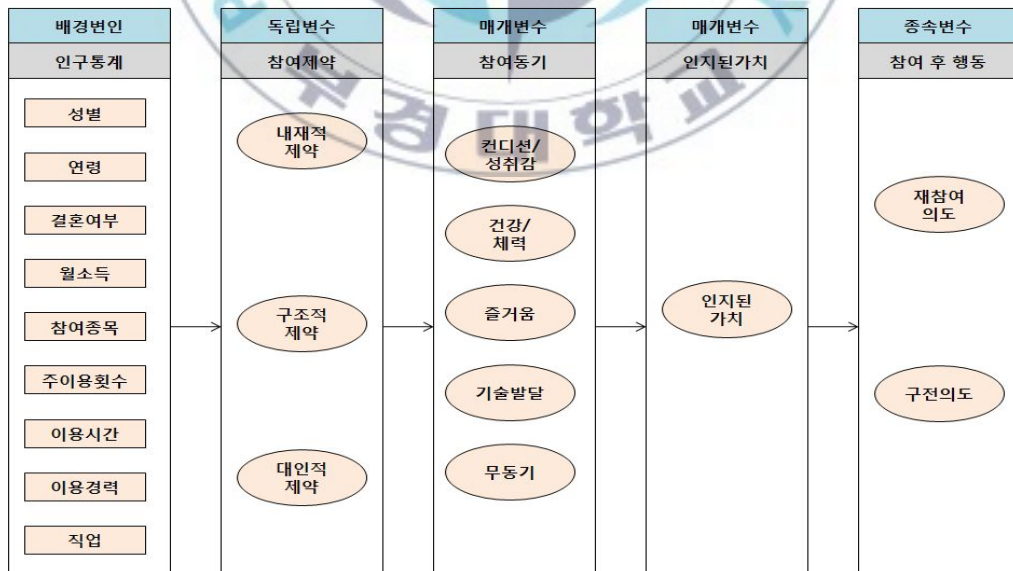
넷째,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3. 연구 모형 및 가설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의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 요인이 참여동기 및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에 관한 연구를 설명할 수 있는 연구모형 및 가설을 각각 설정하였다.

가. 연구모형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의 참가를 저해하는 참여제약 요인에 따라 해양스포츠의 발전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독립변인은 참여제약으로 설정하고 매개변인으로서는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로 설정하였다. 또한 종속변인은 참여자들의 참여 후 행동으로 설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림 1-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그림 1-1> 연구모형

나. 연구 가설

이 연구의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설정한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참가 제약 요인은 참여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 내재적 제약은 컨디션/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2: 내재적 제약은 건강/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3: 내재적 제약은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4: 내재적 제약은 기술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5: 내재적 제약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7: 구조적 제약은 컨디션/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8: 구조적 제약은 건강/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9: 구조적 제약은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0: 구조적 제약은 기술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1: 구조적 제약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2: 대인적 제약은 컨디션/성취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3: 대인적 제약은 건강/체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4: 대인적 제약은 즐거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5: 대인적 제약은 기술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2-16: 대인적 제약은 무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 참여동기는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1: 컨디션/성취감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2: 건강/체력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3: 즐거움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4: 기술발달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3-5: 무동기는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 인지된 가치는 참여 후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1: 인지된 가치는 재참여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가설 4-2: 인지된 가치는 구전(권유)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4. 용어의 정의

가. 해양스포츠(Marine Sports)

해양스포츠는, 바다·강·호소(湖沼) 등 자연의 물에서 동력·무동력·피견인 등의 각종 장비(보트 등)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쟁적인 스포츠형(엘리트체육) 해양스포츠와 비경쟁적인 레저스포츠형(생활체육·해양레크리에이션) 해양스포츠를 비롯하여 학교체육교육으로서의 해양체육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함의하는 광의적 개념이다(지삼엽, 2006).

나. 참여제한

Jackson(1988)은 특정한 행동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대한 일련의 이유들로 여가제한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내적인 심리상태, 태도, 성격,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외적인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Crawford & Godbey, 1987).

다. 참여동기

무슨 일을 하든 그 어떤 일을 할 때 하고싶은 “마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개인이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려고 하거나 또는 레저 스포츠 활동을 포함한 모든 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내적 심리상태를 의미한다(김중동, 2008).

라. 인지된 가치

참여자에 의해 인지된 가치는 관광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견, 신념, 태도, 흥미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Oh(1999)는 인지된 가치에 대해 인지된 품질과 인지된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금전적 희생간의 교환이라고 하였으며, Bolton & Drew(1991)는 인지된 가치는 금전적 가치 이외에 시간적 비용, 고객의 기호 고객특성, 특정상황과 배경, 상징적인 것, 지각된 품질 등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마. 참여 후 행동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은 참가지의 경험과 행동에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해양스포츠 참가의 선택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재참여의도와 구전의도는 소비행동의 특수 형태로 직접 참가한 참여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참여의도와 구전의도를 참여 후 행동으로 정의하였다.

5. 연구절차

해양스포츠의 참여제약과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모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2> 연구절차

- 1) 연구주제의 선정: 2009년 7월.
- 2) 연구주제 관련 국내·외 문헌 및 자료수집: 2009년 8월~2009년 12월.
- 3) 문헌검토: 2010년 1월.
- 4) 설문문항의 구성 및 작성: 2010년 2월~2010년 3월.
- 5) 연구대상자의 선정 및 설문지 수정 보완: 2010년 4월.
- 6) 설문지 배부/ 조사 및 수집: 2010년 5월~2010년 7월.
- 7) 통계처리 및 분석: 2010년 7월~2010년 8월.
- 8) 논문작성: 2010년 8월~2010년 11월.



6. 연구 범위

해양스포츠에 참여할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제약이 해양스포츠의 활성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개선점을 마련하는 것으로 연구대상, 측정도구, 연구방법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소할 목적으로 연구를 한정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0년 현재 해양스포츠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곳을 선정하여 각종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고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였다. 참여자들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여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한 후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으며 불성실한 설문지는 제거하였다.

둘째, 참여계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선행연구와는 시간과 장소 및 대상자의 차이가 있어 완벽히 재현할 수 없을 것이며, 요인분석에 결과에 맞는 요인명은 새로이 부여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자의 개인적 가치는 개인의 인식과 태도 분석만으로 한정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해양스포츠

가. 해양스포츠의 개념

자연친화적 스포츠는 현대성의 맥락에서 그동안 객관화되고 종속되어져 온 자연과의 조화와 협동을 강조한다. 실제로 자연친화적 스포츠는 고도로 조직화되고 상업화된 현대스포츠에 대한 반발로 태동한 스포츠로서, 자연 환경에 대한 의식 개혁 및 자연과 인간 간의 자유롭고 조화로운 친화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계속 발전하고 있다(임번장, 1996).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자연친화적 스포츠를 대표할 수 있고 특히 국내의 각종 여러 조건상 향후 발전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스포츠가 바로 해양스포츠라 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의 개념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정의 내려지고 있는데, 구우영(1996)은 해양스포츠를 해양, 즉 해변, 해중에서 이루어지는 스포츠의 모든 형태를 해양스포츠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스포츠가 행해지는 환경적 영역이나 활동영역에 초점을 맞춘 정의라고 할 수 있고, 김정렬(2000)은 해양스포츠를 해양에서 바람과 파도를 이용하거나 수중에서 신체를 이용하는 레크리에이션 활동으로 자연과 동화될 수 있는 자연친화적 활동이며 자연에 대한 도전정신과 호연지기를 기를 수 있는 자연친화적이며 도전적인 활동이라고 정의내리면서 해양스포츠의 환경적인 측면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또한 김준, 이근모, 김인형(2007)의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는 환경친화

적, 테크놀로지로서 육상스포츠가 갖는 운동효과를 포함하여 모험심과 도전 및 탐구정신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단순, 복잡한 장비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지적인 능력을 향상시키고, 특히 친 해양 정서를 함양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 있다. 해양스포츠는 특히 수중에서 행하여진다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으며, 안전장비와 안전수칙만 준수한다면 위험한 운동이 아닌 매우 유익한 여가스포츠로 즐길 수 있다. 또한 혼자서 행할 수도 있지만 여러 명이 함께 행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현대사회에 더욱 필요로 하는 협동심, 긍정적 대인관계 조성 등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해양스포츠를 통한 사회화에 있어서도 태도나 역할가치가 긍정적으로 향상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를 끼고 있으며 비교적 양호한 해변입지 조건과 온화한 기후와 같이 자연적 환경이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의 해양스포츠들보다 발전이 미흡하다.

이렇듯 여러 학자들의 의미는 유사하나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지 못한 시점에서 해양스포츠에 대한 중심개념이 일부 혼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삼업(2006)은 “해양스포츠는, 바다, 강, 호소(湖沼) 등 자연의 물에서 동력, 무동력, 피견인 등의 각종 장비(보트 등)를 이용하여 이뤄지는 경쟁적인 스포츠형(엘리트체육) 해양스포츠와 비경쟁적인 레저스포츠형(생활체육·해양레크리에이션) 해양스포츠를 비롯하여 학교체육교육으로서의 해양체육 활동 등을 모두 포괄·함의하는 광의적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또 “공간적 범위는 제도의 존중, 사람과 장비의 안전이 확보되는 가운데 인간의 문화가 미치는 그 어디쯤의 공간, 즉 수직 개념은 수심 70cm~30m내외이고, 수평 개념은 나라 안의 경우, 해변~영해까지”라고 밝혀 해양스포츠 활동의 공간적 범위까지라고도 연구하였다.

해양스포츠는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을 깨닫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

것과 함께 바다 강 호소 등 있는 그대로의 자연이 종교요 삶이게 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높은 체육적·정서적 효과를 비롯하여 자아실현, 환경과 생태, 삶의 질, 심미적 가치 등의 항목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게 하는 탈물질주의적 가치관 확립효과 등 여러 가지 덕목을 두루 갖추고 있는 완전스포츠(지삼업, 2003)”라고 밝혀 해양스포츠의 중심개념에 대한 명쾌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나. 해양스포츠의 유형

국토해양부(2006)에서는 해양스포츠의 유형구분에 있어 해양관광레저 스포츠의 유형을 보면 <표 2-1>와 같다. 해양 의존형은 스포츠형, 휴식·휴양형, 유람형, 경관 관람형으로 구분가능하며, 스포츠형은 보팅, 요트와 보트 다이빙, 그리고 동력을 원천으로 하는 고무보트, 패러세일링,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휴식·휴양형은 해수욕, 조간대수렵(조개잡이), 바다낚시로 구분하며 유람형은 해상유람, 경관 관람형은 해중경관감상으로 구분한다.

또한 해양 연관형은 해변스포츠, 레크리에이션활동, 해변축제, 이벤트참여 등과 해양경관조망, 낙조감상 등, 해양문화탐방 등, 갯벌생태체험, 철새관찰 등으로 구분가능하다.

<표 2-1> 해양관광 및 해양스포츠의 유형구분

구분	유형	종목	세부종목
해양 의존형	스포츠형	보팅	서핑, 윈드서핑
		보트	세일링 요트, 카누, 수상오토바이, 모터보트 등
		스포츠잠수	스노클링, 스쿠버다이빙 등
		기 타	고무보트, 패러세일링, 수상스키 등
	휴식 및 휴양형	해수욕	바다수영, 물놀이, 일광욕 등
		조간대수렵	조개잡이 등 해변동식물 채취
		바다낚시	선상낚시, 암벽낚시 등
	유람형	해상유람	관광유람선, 여객선, 크루즈 등
	경관관람형	해중경관감상	관광잠수정, 해중전망대 등
	해양 연관형	해변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 해변축제, 이벤트참여 등	
		해양경관조망, 낙조감상 등	
		해양문화탐방	
기타		갯벌생태체험, 철새관찰	
		연수, 회의, 연구, 교육 등의 방문, 어항, 어장 관람, 수산물시장 쇼핑, 각종 음식점 방문 등	

출처: 국토해양부(2006). 해양관광기반시설 조성 연구용역보고서 재인용.

김경렬(2000)의 연구에 따르면 해양스포츠의 유형을 공간 입지와 동력원천으로 구분하였으며, 공간입지는 수상스포츠와 수중스포츠로 구분하였다. 수상스포츠는 윈드서핑, 수상스키, 요트, 서핑보드, 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등으로 구분 가능하며, 수중스포츠는 스낵 스쿠버로 구분할 수 있다. 동력원천에 따른 분류에는 바람을 이용한 해양스포츠, 파도를 이용한 해양스포츠,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해양스포츠로 구분이 가능하다.

<표 2-2> 해양스포츠 유형구분

유형	구분	세부종목
공간입지	수상에서 일어나는 해양스포츠	윈드서핑, 수상스키, 요트, 서핑보드, 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등
	수중에서 일어나는 해양스포츠	스킨 스쿠버(잠수) 등
동력원천	바람을 이용하는 해양스포츠	보드 세일링, 요트 등
	파도를 이용하는 해양스포츠	서핑보드
	동력장치를 이용하는 해양스포츠	수상스키, 수상오토바이, 바나나보트, 패러세일링 등

출처: 이정호(2010)의 논문을 재인용 후 수정

지삼엽(2008b)의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는 각종 장비(보트)를 통하여 이뤄지기 때문에 보트의 종류, 동력장치의 유무에 따라 동력종목, 무동력 종목, 피견인 종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이 모든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볼 때 지삼엽(2008)과 이재빈(2010)의 연구에서 해양경찰청의 수상레저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등의 법률에서 보고 있는 해양스포츠를 중심으로 총 16가지 종목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현행 법상 수상레저안전법에 의거한 분류가 가장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해양스포츠 유형별 분류

구 분	유 형
동력해양스포츠 기구	모터보트, 모터요트, 수상오토바이, 5마력이상 엔진장착고무보트, 호버크라프트, 스쿠터 등
무동력해양스포츠 기구	세일딩기·세일크루저요트, 해양조정, 해양카약, 해양카누, 수상자전거, 윈드서핑, 노보트
피견인 해양스포츠 기구	수상스키, 워터슬레이드, 패러세일링

출처: 이재빈(2010)

다. 해양스포츠 현황

해양스포츠는 지리적 요인이나 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다른 레저 활동에 비해 일반 대중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가 형태의 변화와 늘어난 공휴일, 친환경적인 여가활동으로 인해 해양에서 즐기는 해양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해양스포츠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2008년 132만 명이 해수면에서 해양스포츠를 이용하였다. 국토해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10년에는 국내의 연간 해양관광인구는 전체 관광의 31.4%인 1억 1천만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그중 해양스포츠 참여 인구는 6백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국내 국민 1인당 GNP가 2만 달러 수준에 이르면서 해양스포츠가 대중화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정부는 해양스포츠 산업의 시대에 앞서 전국의 해안을 10개 해양관광 개발권역으로 지정하고 해양모험관광, 해양친수문화공원, 해양과학관, 해상 낚시공원, 해양생태공원 등의 조성을 계획 및 추진하고 있다.

<표 2-4> 해양스포츠 참여 인구 추이

구분	1997	1998	2000	2003	2010
인구(천명)	45,991	46,430	47,280	48,430	50,620
1인당 연평균 관광 참여횟수	6.9	6.5	6.9	7.1	7.3
총 관광 참여횟수(천명)	317,337	301,795	326,232	343,853	369,526
해양관광 참여횟수	74,143	72,129	84,404	92,060	116,431
백분율(%)	23.4	23.9	25.9	26.8	31.4
해수욕(천명)	56,579	55,042	63,043	68,741	83,080
바다낚시(천명)	5,200	5,059	5,849	6,578	8,658
해양스포츠(천명)	104	1,006	1,574	2,394	6,368
해양연관형(천명)	11,330	11,022	1,338	14,347	18,325

출처: 해양수산부(현 국토해양부, 2000), 이정호(2010)의 논문을 재인용

2. 참여제약

참여제약이란 사회심리학적 의미에서 개인의 여가활동 참여를 제한하는 유·무형의 장애요인으로서, 개인에게 지각되는 내적인 심리상태나 특성 또는 외적·대인적·상황적 환경을 의미한다(김근오, 2010). 1960년대 초반 ORRRC(The Outdoor Recreation Resources Review Commission)의 연구에서 참여제약과 장애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1980년대에 Iso-Ahola가 최초로 여가활동제약에 대한 개념적 모형을 개발하였다(김빛, 2009).

가. 참여제약 개념

여가활동은 다양한 원인과 환경을 바탕으로 발생하며, 여가활동의 참여와 선호, 관심 등의 정도는 여러 가지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여가활동이 발생하기 전 뿐만 아니라 발생한 후에도 여가활동의 참여를 제약하는 영향은 계속된다(최연희, 2003). 여가활동에서의 참여제약이란 용어는 개인행동 '제약'요소로 경험되는 인간의 내적인 심리상태와 태도, 특징 그리고 외적인 인간 상호간의 상황들을 나타내기 위한 사회심리방법에서 사용되는 것이다(김근오, 2010). 성수경(2007)은 여가활동에서의 참여제약은 여가선호나 행동을 극복할 수 없는 결정요소들로 개념화되지 않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개념화된다고 하였다. 즉 이러한 정의는 결정요인으로 확정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여가활동의 참여제약을 파악한 후 그에 따른 방법적인 측면으로 접근하여 극복이나 완화를 이룰 수 있다.

Crawford(1991)는 이전의 장애에 관한 모델들이 과거 지향적(process-oriented)이라기보다는 정적(static)이었기 때문에 여가장애의 본질

에 대한 이해가 제한되어져 왔다고 주장했으며, 이는 활동에 참여하려는 욕망, 장애, 참여 사이의 상호관계를 인식하지 못하였다. 이는 여가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순차적이고 위계적인 일련의 장애들을 성공적으로 극복해 나가지만,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은 참여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장애들을 경험하게 됨을 인식하지 못했음을 뜻한다(Raymore, 1993).

Jackson(1988)은 제약을 “특정한 행위에 종사할 수 없는 subset”으로 정의하였으며, 원형중(1998)은 이 제약이 여가활동 참여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참여제약을 정의하였다.

표영희(1997)와 황인남(2000)은 참여제약에 대해 개인의 여가활동과 관련해 불참·중지·축소하도록 작용하는 모든 요인을 의미하며, 개인 활동 제약요인으로 경험되는 인간내적 심리상태, 태도, 특성 그리고 외적인 환경들에 의해서 발생하는 것을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심리적인 개념으로 정의하였다. 박상규(2008)는 참여제약을 정의하는데 있어, 사회, 심리학적으로 볼 때 내적인 심리상태, 태도, 성격,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외적인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외숙(1991)은 여가를 선호하거나 여가참여를 결정을 이끌어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가 아니라 선호와 참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참여제약을 정의하였다.

참여제약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Jackson & Searle(1985)은 여가참여의 제약유형을 관심부족으로 인한 비참여, 기회, 동기, 기술의 부족과 같은 내적 혹은 개인의 특징적 장애의 영향으로 인한 비참여,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과 같은 외적 혹은 개인의 특징적 장애의 영향으로 인한 비참여, 시설 및 프로그램 부족과 같은 외적 혹은 상황적 특성의 장애요인 영향으로 인한 비참여로 구분하였다.

이들은 참여를 바라지만 참여의 빈도와 강도를 증가시킬 수 없는 참여

자, 특정 여가활동에 공식적으로 참여하다가 참여를 중단한 사람, 여가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원하는 수준의 만족감·즐거움을 성취하지 못하는 사람 등으로 참여자의 유형에 따라 여가참여와 제약에 대해 구분하였다.

Goodale & Witt(1989)가 지적한 연구들을 보면, 참여를 구체적으로 방해하는 요인을 광범위하게 다룬 연구, 가족, 노년층, 야외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선호하는 계층 등을 연구대상자로 참여제약의 다양한 연령층을 다룬 연구, 비참여에 대한 사회경제적, 인구통계학적 변인, 사회심리학적 변인 등의 여러 지표를 사용한 연구, 야외활동을 또는 스포츠 종목과 같이 특정 여가종목의 참여제약을 다룬 연구, 척도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만족도, 참여제약, 참여동기 등의 기준변인을 사용한 연구 등으로 구분하였다(조연희, 2003).

이러한 연구들에서 볼 수 있듯 참여제약에 대한 이론정립은 쉽지 않으며, Jackson & Searle(1985)가 주장한 “여가활동의 비참여 문제는 여가활동 참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긍정적, 부정적인 모든 요인과 더불어 개인의 여가활동 선택 동기 등의 규명으로부터 크게 벗어날 수 없다”와 같이 참여제약을 규명한 사람들이 어떤 특정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동기와 참여를 통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는 모형을 통해서만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참여제약의 유형

참여제약에 대한 선행연구들(Jackson & Searle, 1985; Goodale & Witt, 1989; Crawford, 1991; 표영희, 1997; 황인남, 2000)에서는 참여제약을 한가지로 정의 내리고 있었으며, 그러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참여제약의 유형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제약항목의 다양한 개념적 명확성의 결과

에 기인한 것으로 연구결과를 일반화시키는데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강석희, 1999).

이러한 일반화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제약항목에 대한 다양한 분류가 이루어졌으나 크게 개념적 분류와 경험적 분류로 구분되는데 개념적 분류는 개인의 속성인 내적제약과 환경의 특성인 외적 제약으로 나누며, 경험적 분류는 개념적 분류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요인분석을 사용하였다.

Crowford & Godbey(1987)은 개념적 제약을 인간내적 제약, 대인적 제약, 구조적 제약으로 분류하였다. 인간내적 제약은 여가에 대한 개인의 심리적인 상태와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 우울, 걱정, 여가활동에 대한 적정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등이다.

대인적 제약은 각 개인 간의 인간관계나 상호작용의 결과로 생겨나는 변수들을 의미하며, 개인들은 여가활동에 같이 참여할 친구나 동료를 찾지 못하게 될 때 대인적 제약을 경험하게 된다.

구조적 제약은 재정적 자원, 시간과 기회의 문제 등이 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구조적 제약은 개인의 사회적 특권이나 사회경제적 지위와 높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험적 분류방법을 사용한 연구는 Henderson et al.(1988)은 ‘시간, 돈, 시설 결여, 가족의무, 여가가 중요하지 않음, 정보부족, 결정능력부족, 신체이미지, 흥미부족, 안전상의 이유’의 10가지 요인을 도출했다. McGuire(1984)는 ‘외적 자원, 시간, 찬성, 사회적 능력, 물질적 행복’의 5개 요인을 도출했으며, Witt & Goodale(1981)는 가족생애주기를 기준으로 설명변수를 가진 제약의 관계형태에 따라 U형 관계, 역U형 관계, 정관계 3가지 주요 그룹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강석희, 1999).

참여제약 유형의 개념적 분류를 연구자 별로 정리하면 다음 <표 2-4>와 같다.

<표 2-5> 연구자별 참여제약의 유형과 개념 분류

연구자	제약유형	구분
Francken & Van Raaij (1981)	내적제약	개인의 재능, 능력, 지식, 관심
	외적제약	환경, 시간과 돈의 부족, 거리, 시설의 부족
Jackson & Searle (1985)	저지	전적으로 참여를 배제한 것
	억제	주변 환경에 의존, 보다 많거나 보다 적게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방해하는데 도움을 줌
Crawford & Godbey (1987)	내재적 제약	참여보다는 선호에 영향을 줌
	대인적 제약	선호와 참여에 동시에 영향을 줌
	구조적 제약	
Henderson et al. (1987)	간접	레크리에이션 기회와 명확하게 관련되어 나타남
	전례	개인적 능력, 개성, 사회화된 인자, 흥미 등과 같은 장애와 관련된 태도
Iso-Ahola and Mannell (1985)	연구적 제약	
	일시적 제약	

(1) 내재적 제약

여가선호는 내재적 제약이 해결되거나 그 효과가 인간의 의지에 따르는 활동과 조화를 이루었을 때 형성된다. 내재적 제약은 여가선호와 참여를 동일한 속성으로 보거나 그 사이에서 매개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가선호에 상호작용하는 개인의 심리적 특성과 상태를 의미한다(김근오, 2010).

예를 들면 긴장, 분노, 우울증, 좌절감, 광적신앙,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과거의 사회화 등의 개인적 속성과 인지된 능력,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적성과 활용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 등을 들 수 있다. 내재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쉽다. 이리

한 제약 가운데 일부는 사회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 그 결정은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 따를 수밖에 없다. 내재적 요인들이 상호작용하여 관계의 본질에 영향을 미친다면 대인적 제약의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김희은, 2006).

(2) 대인적 제약

개인은 대인적 수준에서 제약을 직면하며, 이러한 제약을 극복할 수 있을 때 구조적 제약을 직면하기 시작한다. 대인적 제약은 특정한 여가활동의 참여에 있어 내재적 상호작용이나 개인적 특성의 관계,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수적인 제약이나 동반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나는 제약으로서 단체적 여가활동에 대한 선호와 참여에 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동반한 참여자의 특정 여가활동에 대한 태도 그 자체가 여가활동의 선호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실력과 선호도, 시간의 공유 등의 불일치가 심하게 되면 공통적인 여가참여는 불가능해진다. 대인적 제약은 내재적 제약을 극복하고 난 후에 지각하는 것이며, 개인의 특성에 따른 관계 또는 개인 상호간의 작용에 대한 결과로서 여가활동에 참여를 친구나 동료로 찾을 수 없거나 이들과의 선호도가 일치하지 못하여 경험하게 되는 제약이라고 볼 수 있다(송원익, 20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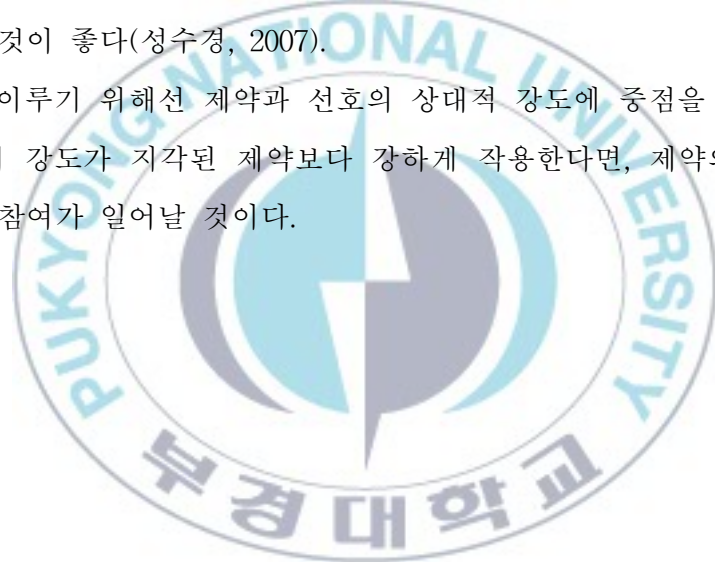
(3) 구조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여가참여와 선호 사이에 개입하는 일반적인 제약으로 개념화된다. 구조적 제약의 예로는 재정적 출처, 시설 및 서비스 관련문제, 가족생활주기, 근무일정, 계절, 기후, 기회의 비실용성 등이 있다. 참여제약

은 여가행동의 결정적 요인이 아니라 영향을 주는 요인이고 따라서 여가 행동을 가장 잘 예측하려면 제약과 선호의 상대적 강도에 유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김성관, 2006).

이와 같이 기회나 적합성이 직접적으로 활동에 대한 선호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참여에 간접적인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구조적 제약수준에서는 아마도 만족스러운 사전의 참여경험을 통하여 선호가 이미 정립되어 있게 된다. 결과적으로 기회의 부족이나 부적합 인식이 활동참여를 방해할 지도 모르나 제약을 여가활동의 요소가 아닌 단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기억하는 것이 좋다(성수경, 2007).

참여를 이루기 위해선 제약과 선호의 상대적 강도에 중점을 둘 수 있으며, 선호의 강도가 지각된 제약보다 강하게 작용한다면, 제약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참여가 일어날 것이다.



3. 참여동기(motive)

가. 참여동기의 개념 및 특성

라틴어 ‘movere’로부터 파생된 동기(motive)의 어원은 움직이다(to move)는 뜻으로서 동기란, 왜 사람들이 행동(move or active)을 하는지를 알기 위한 연구의 시작점이다. 또한 행동을 취하게 하는 준비태세이며 이러한 상태로 하여금 목표로 이끌어 갈 수 있게 하는 에너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김운규, 1997). 그러나 개개인마다 지니고 있는 동기의 양상은 매우 다양하여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심리적, 생리적인 제반 측면에서 볼 때 변화무쌍한 성질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동기 자체를 명확하게 개념 짓기란 쉽지 않다.

이렇게 동기의 개념에 관한 견해가 일치하고 있지는 않으나, 개체 내부의 에너지에 의해 활동을 불러 일으켜 심리적, 신체적 활동을 조직적으로 통합함으로써 개체를 목표로 향하게 하는 기능을 갖는 내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최병렬, 2008). 인간의 내부동기에 있어서의 문제는 인간행동을 야기하는 내적, 외적 자극에 의해서 오는 의미를 어떻게 지각하느냐 하는 것이다(Jackson & Burton, 1980).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각 개인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Mannell, 1999).

많은 동기 이론들은 행동 수행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감정과 정서를 포함시키고 있다. 즐거움과 행복감 같은 긍정적인 감정은 동기와 미래 숙련 시도를 증진시키지만, 불안과 실망, 그리고 수치심 등의 부정적 감정은 미래 참여동기를 감소시킬 것이다. 이와 같이 동기는 동기로서 독립된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각성, 정서와 관련되어 동기수준이 결정되기 때

문에 다차원적 접근에 의한 행동의 연구가 필요하다(이광수, 2003).

전통적으로 동기는 어떤 분명한 목표를 향해 방향이 주어지고 활성화된 행동의 과정으로서 행동을 조절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왔다. 따라서 동기의 기본적 문제는 행동의 방향과 강도 그리고 지속성과 관련하여 정의되어 왔다(Revelle, 1993).

이와 같이 동기(mover)에 관한 정의는 여러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tkinson(1965)은 동기는 활동의 방향강도 및 지속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 가지 이상의 효과를 내는 활동 경향성(action tendency)의 촉발을 뜻한다고 했고, Alderman(1974)과 Cratty(1983)등은 어떤 사람이 어떤 특정한 행동을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계속하며 선택한 행동을 잘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동기라고 하였다. Berelson과 Steiner(1968)는 동기란 행동을 활성화시키거나, 작동시키는 내적인 상태라고 정의하였으며, Deci(1975)는 내적동기에 대한 인지적 평가이론에서 인간의 기본 욕구를 자결성과 유능성의 욕구라고 전제하고,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란 자결성과 유능성의 욕구에 의해서 동기화된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Gellerman(1968)은 일정한 목표를 지향하여 행위를 조정하고 에너지의 일부를 이들 목표 도달에 투입시키는 것이라고 하였으며, Ross(1987)는 동기란 개인이 목표를 향해 나가도록 움직이게 하는 내적 심리상태라고 정의했다. Sage(1977)는 노력의 방향과 강도로 정의하였는데, 여기서 노력의 방향(direction of effort)이란 어떤 사람이 특정상황이나 행동을 추구하고 거기서 나아가는지의 여부를 말한다.

동기는 행동을 일으키는 시발기능, 특수한 반응을 선택하는 선택기능, 행동을 목표에 방향 짓는 지향기능, 목표에 도달했을 때 그 행동의 재현가능성을 높이려는 강화 기능 등 여러 가지 기능을 갖고 있다(류정무, 이강현, 1990).

먼저 시발기능으로서의 동기는 내적인 힘을 제공해 주고 정서적 흥분을 일으키며 기대방향을 제시해 주는 욕구나 충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 욕구가 감소하거나 제거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는 행동의 원동력으로서 작용한다(정용각, 1998).

유기체는 욕구가 생기면 그것을 충족시켜 내적 균형을 유지해야 하고, 어떤 욕구에서 동기가 형성되면 심리적인 긴장 상태를 가져오게 된다. 이때의 감정 상태는 일반적으로 정서라고 하는 흥분을 일으킨다. 그리고 동기 유발이 된 사람은 내적인 에너지 변화에서 생기는 긴장을 감소시키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러한 동기의 선택기능은 목표의 선택과 결과에 작용한다(조성희, 2001).

동기는 일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동기가 지니는 추동 또는 각성 촉발을 시키는 인간 행동의 활성화 측면과 행동이 어떤 목표를 지향하여 이루어지도록 인간행동의 방향을 설정하거나 또는 목표를 지향토록 방향을 설정시키는 목표 지향기능을 가진다.

그리고 목표에 도달했을 때, 욕구의 강도와 에너지의 방향을 지닌 행동을 계속해서 유지시키려는 강화 기능이 있다. 이 기능은 동기가 지니는 지속성 또는 행동적 차원으로 설명할 수 있다(류정무, 이강현, 1990).

이와 같은 특성을 갖는 참여동기(motivation)는 요구, 인지, 정서(각 행동의 방향과 활성화를 시키는 하나의 내적 과정)가 서로 연관되어 나타나는 일반적 용어로 사용된다(Reeve, 1997).

나. 참여동기의 분류

최근 10여 년 간에 걸쳐서 인간행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동기과정을 중요시하는 학자들 사이에 내적동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이란 강화나 보상 없이도 행동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활동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행동을 말한다. 반면에 외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보상의 획득이나 처벌의 회피 등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되는 행동을 말한다. 또한 많은 연구들의 외적 보상들과 외적 제약들이 외적 동기와 내적동기에 미치는 영향들을 탐색해 왔다. 최근에는 무동기까지 합쳐 3분류학에 의한 동기의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스포츠 심리학 분야에서는 스포츠 행동에 대한 내적동기에 초점을 맞춰 왔다. 또한 내적동기, 외적동기, 무동기를 다차원적으로 측정하는 도구가 개발되면서 동기의 세 가지 측면을 통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김종동, 2008).

1) 내적동기

내적동기는 인간의 기본적인 동기로서 무언가의 목적(보수)을 위해 행동이 수단으로서 생기는 경우가 아닌 자신이 어떤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여 활동하는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 보상에 따른 행동이 아닌 자기만족에 의미를 두는 것이다(이창기, 2003). 즉 자신의 관심과 운동에 대한 자신의 능력과 최적의 도전을 숙달하고, 추구하고, 행하려 하는 타고난 특성이다(Deci & Ryan, 1985). 내적동기는 자기 스스로 선택한 활동에 의하여 생성된 즐거움이나 유능함을 경험하고 외적 강압 없이 자기 스스로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에 효과를 미치려는 인간 본유의 욕구와 자기강화에 반영된다고 볼 수 있다. 사람들은 내적으로 동기화되어 있을 때 물질적 보상이나 외적 제약 없이 자발적으로 수행할 것이다(Deci & Ryan, 1985).

Csikszentmihalyi(1975)는 즐거움을 크게 강조하면서 내적동기를 즐거움으로 정의하고 내적동기의 목적은 개인의 내재적 경험이며, 즐거움으로 활동에 몰입하여 활동자체에 완전히 일치되는 경향이라고 하였으며, 이러

한 몰입상태를 최적의 경험이라고 하였다.

Deci(1975)는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은 한 개인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유능감과 자결성을 느끼려는 내적 욕구에 의하여 형성된다고 하였으며, Festinger(1957)는 어떤 자극에 불일치 또는 부조화 때문에 오는 동기를 내적동기라 하면서 불일치한 심리의 조화가 보상을 받으면서 접근행동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Harter(1981)는 어떤 것을 선호한다든지, 도전, 호기심, 숙련이나 숙달하는 것을 내적동기로 정의하였으며, White(1959)는 인간의 동기에는 추동이론 이외에 인간에게는 항상성 유지가 아닌 다양한 다른 활동, 예를 들면 놀이, 탐구 같은 다른 행동이 있다고 기술하였다. Pelletier(1995)는 내적동기를 호기심과 탐색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알려고 하는 내적동기, 완벽한 수행과 숙달을 위해서 성취하려는 내적동기,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의 자극을 경험하려는 내적동기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Vallerand & Bissonnette(1992)가 제시한 내적동기의 분류법은 새로운 개념적 틀을 제시하고 있다. 이 분류법에 따르면 내적동기는 세 가지 형태가 있으며, 이러한 분류의 근거는 내적동기를 다룬 선행문헌을 기초로 하고 있다. 내적동기의 세 가지 형태란 지식획득 내적동기, 성취 내적동기, 자극체험 내적동기이다.

첫째, 지식획득 내적동기란 탐험, 호기심, 학습목표, 학습하려는 것으로서 “알고자 하는 동기(IM: to know)”라고 할 수 있다. 즉 “어떤 사람이 새로운 무엇인가를 배우고, 탐색하며, 이해하고자 노력하면서 느끼는 재미나 즐거움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 할 수 있다(Pelletier, Fortier, Vallerand, Tuson & Briere, 1995).

둘째, 성취 내적동기란 “어떤 사람이 자신의 최고기록에 도전하거나 무엇인가를 달성하면서 느끼는 기쁨과 만족감 때문에 어떤 활동을 하는 경

우(IM: to accomplish things)”를 의미한다. 즉 “무엇인가를 이룩하려는 동기”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자극체험 내적동기란 아름다움이나 즐거움을 경험하기 위해 자극을 경험하려는 “좋은 기분을 추구하는 동기(IM: to stimulation)”라고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 즉 “기분 좋은 감각을 느끼기 위해서 어떤 활동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외적 동기

내적동기가 아닌 어떤 동기가 목적의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외부의 압력과 간섭으로 이루어진 행동을 외적동기에 의한 행동이라고 한다. 따라서 외적동기는 인간의 사회화 현상에서 자연적, 또는 내적동기가 아닌 것에서 요구되는 가치, 태도와 같은 많은 행동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내적동기와는 반대로 외적동기는 활동 자체 추구를 위한 것이 아니고 결과의 수단으로서 참여하는 다양한 인간 행동을 말한다(Deci, 1975).

외적동기는 전통적으로 외적 통제요인에 의해 나타나는 행동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해 왔다. 그러나 최근 Deci와 Ryan(1985)은 자결성의 역할에 따라 외적동기의 또 다른 유형을 제시하였다. 그래서 자결성이 낮은 수준으로 외적규제(external regulation), 외적동기의 내면화(introjection), 확인된 규제(identified regulation)로 분류할 수 있다.

먼저 외적규제의 동기유형은 타인에 의해 물질적 보상 또는 강조된 제약 같은 외적자원에 의해 조절된 행동을 말한다(Deci & Ryan, 1985). 즉 어떤 행동이 외적 보상이나 타인의 강요에 의해 규제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외적동기 유형인 외적동기의 내면화는 외적인 동기요인이 내적인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이유를 내면화시킴

으로서 행동을 개시하는데 외적요인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됨을 말한다.

마지막 유형으로 확인적 규제는 개인이 좋아서 수행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행동을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자신의 선택에 따라 행동을 할 경우를 의미하며 스스로의 결정에 따른 행동은 확인규제의 외적동기에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문영희, 2003). 이러한 활동은 외적 이유들(예, 개인의 목표 성취)때문에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무동기

동기의 마지막 형태인 무동기는 학습된 무기력(무력감)의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 Deci & Ryan(1985)의 인지평가 이론에 의하면 주위 상황이 개체에 주어진 자결성에 의한 것이 아니거나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들은 무동기 상태라고하며, 무관심, 냉담을 수반하는 동기라고 하였다. Deci & Ryan(1985)은 무동기를 ‘개인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동기의 상실’이라고 하였고, Vallerand(1992)는 무동기의 유형을 첫째, 능력부족으로 인한 무동기 둘째, 전략미흡의 무동기 셋째, 노력회피의 무동기 마지막으로 무기력 신념의 무동기로 정의하였다.

첫째, ‘능력 부족’으로 인한 무동기는 특정 능력을 수행할 능력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둘째, ‘전략 미흡’으로 인한 무동기이다. 이는 어떤 전략이 바람직한 결과를 이룩하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믿을 때 무동기 상태에 이른다. 셋째, ‘노력 회피’에 의해 초래되며, 특정 행동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겠다고 생각할 때 나타나는 동기이다. 넷째, ‘무기력 신념’으로 성취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벅차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한다.

Pelletier(1995)는 무동기인 사람은 그들의 행동과 행동결과 사이에 어떤 기대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정의하였다. 정용각(1997)은 무동기는 학습된 무기력의 개념과 유사하다는 차원에서 무동기를 ‘개인의 행동이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믿음에 기인한 동기의 상실’이라고 정의하였다. 개인적 무동기는 다른 사람은 어떤 결과를 얻는데 자신은 바람직한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이며, 일반적 무동기는 자기 자신과 관계있는 다른 사람도 결과를 얻을 수 없을 때 생긴다. 이러한 무동기는 개인의 의도적인 통제 밖에서 일어나기에 내적동기도 외적동기도 아닌 상태를 말한다.

다. 참여동기 관련 선행연구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심리적, 사회적 관점에서 참여행동 과정을 실험하고 정립하는데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왜 사람들이 행동(Movement)을 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이 각 개인들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Mannell, 1999).

그동안 내적동기 이론은 치료레크리에이션(Caldwell & Weissinger, 1994; Mahon, 1994; Peterson & Gunn, 1984), 아동의 놀이(Barnett, 1980; Csikszentmihalyi, 1975), 여가와 신체 건강(Coleman, 1993; Weissinger & Iso-Ahola, 1984), flow의 경험(Bradley & Mannell, 1984; Csikszentmihalyi & Csikszentmihalyi, 1988; Mannell, Zuzanek & Larson, 1988), 여가활동의 비지속(Backman & Crompton, 1990)등과 같은 여가활동의 다양한 분야와 스포츠 장면에서 목표접근과 행동(Duda, 1989), 경쟁 스포츠와 레크리에이션 스포츠에서의 성별차이(Fortier, Vallerand, Briere & Proventcher, 1996), 운동행동과 내적동기

(Oman & McAuley, 1993), 청소년 스포츠 참여동기와 유능감(Klint & Weiss, 1987)등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많은 여가 장면과 내적보상을 제공하는 행동을 선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며 내적 동기의 영향이 운동참여의 지속을 높인다고 하였다.

Maddi 등(1981)은 내구력 있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 내적 보상을 갈망하는 경향이 가장 잘 나타나고 있다고 제시하였다. 그들은 어떤 성격특성들(욕구, 현실, 도전을 조절하려는 경향)의 내적으로 동기화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을 강조하면서 개인과 과제가 상호작용 할 때 내적동기화의 행동을 할 경향이 더욱 높다고 하였다.

Gill, Gross 및 Huddleston(1983)은 1138명의 남녀 청소년을 대상으로 참여동기의 다양한 차원을 개발하였다. 질문지의 반응들을 요인 분석하여 성취·지위, 팀 지향성, 체력, 에너지 방출, 상황적 요인, 기능 향상, 친화, 재미의 8가지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남녀 학생 모두 기능향상, 새로운 기술 학습, 재미, 새로운 기능습득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한 반면, 여학생은 재미, 새로운 기능습득, 체력, 도전의 순으로 중요도를 평가하였다.

초기의 내적동기 구조의 개념화(Deci, 1975; Lepper & Green, 1976)에서 내적동기의 활성화는 과제의 특성(예, 흥미가 얼마나 있는가)또는 상황의 특성(예, 보상의 유형은 무엇인가)에 의해 결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제, 상황 접근은 개념적 또는 방법론적으로 개인 변인의 영향을 고려하는데 실패하였다.

Deci 등(1985)은 과제와 상황에서 반응에 대한 실질적인 개인차의 관찰을 근거로 행동 선택에 영향을 주는 3가지 성격지향(자발성, 통제, 무감정)의 존재를 제시하였다. 자발성 지향은 자신의 환경을 조절하여 기회를 추구하고 유능감과 자결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행동을 선택하는 경향으로 특징되고 있다. 즉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내적으로 동기화

된 행동을 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4. 인지된 가치

가. 인지된 가치의 개념

일반적으로 고객에게 전달된 가치관, 고객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제품과 서비스의 전반적인 능력에 대한 고객 평가를 의미하는데, 전체 고객가치와 전체 고객비용과의 차이가 고객에 대한 이익 또는 고객에게 전달된 가치이다. 전체 고객가치는 구매자가 기업의 마케팅 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상품, 서비스, 인적자원, 이미지 가치 등의 총 집합이고, 전체 고객비용은 마케팅 활동과 관련된 금전, 시간, 에너지 및 심리적 비용의 총합계로 주장하고 있다(박강수, 김형순, 김영태, 2000). 인지된 가치란 주고받은 것에 대한 상품의 유용성(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적인 평가로 정의되어 왔었다(Zeithaml, 1988).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value)는 사람들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기대하는 이익이나 혜택으로 파악된다(이유재, 1999). 이것은 소비자들이 그들의 가치는 구매의도와 서비스 품질에 대한 인식 또한 그것을 위해 들인 희생들 사이의 관계 파악에 있어 핵심 구조로 작용한다. 즉, 가치는 소비자가 서비스를 통해 얻는 것과 그것을 위해 제공하는 것 사이의 상대적 교환관계로 파악되며, 소비자는 가격보다 상위의 개념인 가치에 근거하여 구매결정을 하게 된다. 가치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그 중에서도 Zeithaml(1988)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한 정의가 가장 적절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첫째, 가치란 싼 가격을 뜻한다. 이는 주로 금전적 가격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소비자들은 세일 중인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쿠폰을 이용하여 구매를 한 경우 그것이 가치 있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주로 서비스 구매에서 소비자가 포기하는 희생에 초점을 둔 것이다.

둘째, 가치란 서비스에서 소비자가 얻고자 하는 것 전부를 의미한다. 이는 주로 소비자가 서비스의 구매에서 얻게 되는 혜택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것은 경제학의 효용에 관한 정의와 가장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정의에서는 소비자는 그들이 원하는 수준의 품질을 얻게 된다면 가격에는 그리 신경을 쓰지 않는다.

셋째, 가치는 소비자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 얻은 품질을 일컫는다. 이는 소비자가 자신이 지불한 것(가격)과 얻은 것(서비스 품질)사이의 교환관계를 파악하여 준 것만큼 얻었다고 판단되면 그것을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견해이다.

넷째, 가치는 소비자가 준 것에 대해 받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비자가 지불한 요소를 단순히 금전적 요소에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노력 등의 모든 것을 고려하여 얻게 되는 것 전부를 가치라고 정의한다.

많은 연구에서 대부분이 네 번째인 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소비자가 얻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왔었지만, Zeithaml(1988)에 의해 발전된 서비스의 인지된 가치는 가격, 질, 가치에 대한 소비자의 개념의 관계를 소비자들과 인터뷰를 이용하여 상품태도, 질과 가치 간에 일반적인 관계를 밝히는데 사용되었으며, 인지된 가치와의 관계의 변수와 나타나는 태도에 관한 조사에도 이용되었다. 또한 인지된 질은 인지된 가치를 이끌고, 이것은 구매의도로 이어진다.

가격뿐만 아니라 구매 시 느끼는 것(내적)과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명성(외적 태도)과 인지된 질적인 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인지된 가치의 적절한 변수들은 인지된 희생, 내외적인 태도를 포함하였다. 다시 말해, Zeithaml(1988)은 질과 가격, 상품 및 서비스의 명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상품 및 서비스가 사람들에게 주는 감정적인 것에 대한 것을 인지된 가치와 관련하여 다차원적이라고 하였다.

유사하게, PIMS(The Profit of Impact Marketing Strategies)연구는 질과 가격 관계로서 가치를 개념화하였다(Buzzel & Fale, 1987). 그들은 경쟁적인 분야에서 성공은 소비자 행동에 영향을 주는 상품과 서비스의 종합적인 패키지의 “서로 관련된 인지된 가치”를 통해 획득된다고 하였다. 관련된 가치는, 유사한 제공으로 비교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인지된 가치이다.

Bojanic(1996)에 따르면, “인지된 가치의 개념은 3가지 가능한 가치의 포지셔닝으로 첫째, 대등한 가격에서 대등한 질과 둘째, 고가격에서 우수한 품질과 셋째, 할인된 가격에서 좋지 않은 품질”이다. 인지된 가치는 경영 방식을 바꾸게 할 수도 있어 경쟁자가 변화하거나 소비자의 요구나 선호의 양상에 따라 변화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더욱 최근에 Parasuraman & Grewal(2000)은 인지된 가치를 4가지 형태로 구성된 역동적인 개념으로 개념화하였다.(획득가치, 매매가치, 사용가치, 보상가치) 획득가치는 돈을 준 것에 대해 획득되는 것으로, 매매가치는 좋은 거래를 통해 소비자가 받는 즐거움, 사용가치는 상품/서비스의 사용으로부터 유용성을 창출하는 것, 반면 보상가치는 서비스의 끝이나 거래의 마지막에 남는 이익이다. 이러한 정의들을 사용하면, 4차원 각 개념의 타당성은 상품/서비스의 변화시간 동안 다르게 되어 획득·매매가치는 구매시에 가장 두드러지고, 사용·보상가치는 구매 후에 조금 더 연관이 있게 되는 것이다.

나. 인지된 가치의 측정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인지된 가치의 예측을 위해서 서비스의 측정을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인지된 가치의 연구에서는 고객이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점점의 불확실성과 인지된 위험이 높을수록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Zeithaml(1988)에 따르면 품질과 가치란 대체로 인지된 금전적 가치와 효용과 같은 것으로 구조화하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인지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단일항목으로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Woodruff & Gardia, 1996). 반면에 인지된 가치를 측정하는 가장 복합적인 측정은 고객이 제공받게 된 품질과 고객이 지불하게 될 다양한 것들로 측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측정은 고객들이 가치에 대한 구성을 획득하거나 지불한 것을 인식적으로 예측하여 주의를 가지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Petrick, 1999). 여러 학자들(Jayanti et al. 1996; Woodruff et al. 1996; Zeithaml, 1988)의 인지된 가치 평가는 고객이 획득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점과 제품 혹은 서비스를 획득하기 위해서 고객이 소비한 것을 비교하는 관점이 포함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Woodruff(1997)에 따르면 고객들의 가치란 특정한 것을 이용하는 상황에 고객들의 목표와 목적 달성을 촉진하는 이용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며, 내부 성과와 이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를 비롯하여 선호를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다.

Jayanti et al.(1996)은 국제체인호텔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인지된 가치의 통합적인 모델을 조사하기 위하여 행동적으로 통합된 관점에서 사용되어진 개념들의 조합에 의한 다차원 변수를 적용한 결과, 기존의 모

텔보다도 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획득효용을 모델에서 충분히 제시하고 있는데, 비금전적인 비용이나 서비스의 편익을 품질 결정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Grewal et al.(1998)은 가치와 구매의도에 대한 고객의 지각과 가격비교의 실증적인 조사를 하기 위해 고안된 대상들 간의 관계를 적용하여 연구를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Jayanti et al.(1996)의 연구와 비교할 때, 획득가치와 거래가치가 독특한 구조를 지니고 있다는 측면이며, 획득가치는 9개의 리커트 문항으로, 그리고 거래가치는 3개의 리커트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측정은 효용과 거래가치에 대해서 선행연구들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인지된 거래가치는 인지된 효용가치에 대해 긍정적인 영향관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인지된 가치는 인지된 품질과 거래가치에 대한 기능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지된 금전적 가격은 인지된 품질에 부정적인 관련이 있으며, 인지된 금전적 희생은 인지된 가치에 부정적인 관련이 있다.

Hartline & Jones(1996)는 인지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형편없는 가치-탁월한 가치’, ‘가격보다 좋은 것’, ‘가격에 상응한 그 무엇인가’에 대한 기대가치로 측정하고 있으며, 또한, 그들은 인지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3개의 항목을 사용하고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가격에 비해 그 호텔은 좋은 가치를 제공하였다. 둘째, 그 호텔을 선택한 것에 대한 주관적인 지각으로써 좋은 기대였다. 셋째, 그 호텔에서 제공한 전반적 가치에 대한 평가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인지된 가격이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있다. 인지된 가격은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Naylor, Frank(2001)는 가치에 대한 고객의 지각에 대해서 가격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금전적 원가, 기대된 금전적 원가, 품질, 전반

적인 금전, 기대하는 전체 가격, 전체 가격의 성과를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규명한 결과,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

Sweeney & Soutar(2001)는 인지된 가치를 4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여 다항목 척도를 개발하였다. 4가지 차원이란 감정적(emotional) 가치, 사회적 가치, 금전적 가치, 기능적 가치 등을 의미한다. 그들은 본 연구에서 가구점과 자동차 오디오점 간에 4가지차원의 인지된 가치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있으며, 또한 인지된 가치가 구매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Sweeney, Soutar & Johnson(1997)은 품질과 인지된 가치 간 인지된 위험의 역할에 관한 연구에서 인지된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가격 대비 좋은 가치’, ‘경제적으로 보이는 제품 가치’, ‘좋은 구매’등 3개의 항목을 이용하였다. 이미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인지된 가치의 구성차원은 다양한 관점에서 시도되고 있다. 이미 인지된 가치의 정의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인지된 가치란, 해양스포츠에서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품질과 서비스에 대하여 고객이 지불하게 되는 비용으로 고객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되며, 고객들은 해양스포츠에서 받은 서비스 편익 외에도 해양스포츠 단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지불하게 된 제비용을 감안하여 인지된 가치를 형성하게 됨을 알 수 있다.

5. 참여 후 행동

가. 참여 후 행동의 개념

스포츠 참여 행동의 예측·설명에 관한 연구는 이전부터 스포츠 사회학의 분야에서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Galbraith(1967)의 연구에 영향을 받아

최근에는 성별, 연령, 학력, 수입 등과 같은 전통적인 인구통계학적 변인이나 사회경제학적 변인만으로는 이전의 스포츠 참여의 예측이나 설명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이다(안창규, 1999). 근래에 들어서는 스포츠 참여 후 행동을 마케팅 개념에서 도입한 소비자 행동 또는 구매 후 행동과의 개념과 관련하여 관람 또는 참여 스포츠시장의 소비자를 분석하는데 유용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즉, 스포츠시장(관람시장, 참여시장)의 소비자 행동을 예측하는 데 유용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 행동의 의사결정과정에는 서비스 품질의 요인(지도자, 시설, 가격 등)과 만족이 선행변인이 되어 구매 후 행동의 예측변인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모험스포츠의 선행요인으로 이들을 사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모험스포츠의 환경이 주로 자연환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진보적인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종래의 스포츠 행동에 관한 연구는 스포츠 행동을 규정하는 심리적 요인의 영향을 지적한 보고가 많이 있다. 즉, 스포츠 운동에 대한 태도, 참가 의욕, 요구, 호의도, 참여동기, 스포츠험, 스포츠 만족도 그리고 퍼스널리티 등의 연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취할 때에는 그 행동을 이끄는 동인과 유인이 존재하게 된다. 스포츠 행동 역시 기본적으로는 스포츠나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하는 요구나 욕구뿐만 아니라 스포츠에 대한 흥미·관심, 가치·태도, 더욱이 퍼스널리티·동기 등과 같은 행동을 규정하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유인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안창규, 1999).

1) 재참여의도

소비자의 구매행동은 문화적, 사회적, 개인적 또는 심리적 요인들에 의

해 강하게 영향을 받는다. 개인의 행동은 다른 집단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데 개인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집단을 소속 집단이라고 한다. 특정 상품의 수용, 구매를 결정하고 환경 및 상황적인 조건만 조절하면 행위로써 외부 행동화될 수 있는 심리적 상태가 의도이다. 즉, 행위 직전의 단계가 의도인 것이다.

구매행동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분류기준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분류된다. 그러나 코헨이 제시한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 환경적 요인이 일반적이다. 사회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은 그들이 속한 사회계층이나 문화 가족 혹은 준거집단 등을 말하며, 개인적 요인에는 태도나 동기, 자아관, 학습, 라이프스타일 등이 속한다. 이는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 소비자 의사결정 과정은 문제인식, 정보탐색, 정보평가, 구매결정, 구매 후 행동 과정을 거쳐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조경훈, 2007).

사회 문화적 요인으로는 소비자의 사회계층, 소비자가 속한 문화, 가족, 준거집단이 속한다. 사회계층은 정확한 기준은 없지만 직업이나 소득, 교육 정도 등에 결정될 수 있다. 문화는 소비자의 행동에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회적으로 학습되고 공유되는 것이므로 소비자의 행동 방향을 제시해준다. 가족은 개인에게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집단으로 가족 구성원들은 가족의 제품구매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 준거집단이란 한 소비자의 행동과 태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이나 집단을 의미하며, 소비자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접촉할 수 있는 가족, 친구, 친척 등이 포함된다(조경훈, 2007).

개인적 요인으로는 태도와 동기, 자아관, 학습, 라이프스타일 등을 들 수 있다. 태도는 특정 대상들에 대해 우호적 또는 비우호적으로 반응하는 학습된 경향이다. 태도는 특정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평가를 요약한 것으로

일단 형성되면 변화하기 어려우며 학습된다고 할 수 있다. 동기는 소비자로 하여금 어떤 목적을 위해 특정한 행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상태이다. 구매동기는 심리뿐 아니라 사회 문화적 요인들도 영향을 끼치므로 스포츠 소비자의 구매동기는 다양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자아관은 개인의 인식과 행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를 하고 이러한 자아관은 스포츠 소비자의 소비행동에 영향을 준다.

학습은 본능적인 반응이라기보다 과거경험이나 사고에 의해 학습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경험이나 외부 정보는 개인의 신념이나 태도를 바꿀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학습이라 한다. 라이프스타일은 가치와 태도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소비자들의 여가시간이나 관심거리, 주변 환경을 보여준다. 스포츠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은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백재근, 2008).

2) 구전(권유)의도

구전은 여러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반응 중에서 중시되는 것이다. 첫째, 구전은 일대일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자나 매스커뮤니케이션보다 효과가 크다. 둘째, 구전은 기업이나 마케팅과 관련되지 않은 정보도 수집할 수 있는 원천이 된다. 셋째, 불편 행동이 판매자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데 반하여 구전은 많은 사람들에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는 게 특징이다. 그러므로 고객 만족의 결과로서 구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김범모, 2003).

Blodgett(1994)는 불만족한 고객에 의한 부정적 구전 즉, 자신의 불만족한 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조사하여 상표전환, 충성고객의 구매중단, 또는 불평과 같은 다른 반응들과 구전반응의 차이점을 구분시켜

주는 변수를 검토했는데 그 결과, 부정적 구전은 문제가 심각할 때 그리고 판매업자의 불평에 관한 반응이 즉각적이지 않으리라고 인지될 때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 소비자는 상업광고보다는 친구나 이웃, 가족 등의 인적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소비자는 특정한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다른 소비자의 경험을 전해 듣거나 그러한 경험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게 되는데 특별히 지각된 위험이 많은 경우에는 구전에 의한 정보의 획득은 소비자에게 정보의 원천으로서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또한 서비스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강력한 원천이 되는 것이 바로 구전효과이다. 사람들은 보통 어떤 서비스를 구매하기 전에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조언을 구한다. 구전에는 서비스나 제품 구입 후 만족했을 때보다 불만족했을 때 더욱 심각하다.

구전에는 3가지 원천이 있는데 개인적 원천, 전문가 원천, 파생적 원천이 그것이다. 이러한 구전으로부터 얻어진 정보는 고객의 예측된 기대를 형성하거나 또는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경우 구전은 이상적 서비스 수준 또는 희망 서비스 수준을 형성할 수도 있다(김기출, 2006).

첫째, 개인적 원천은 친구, 친척, 동료들이 있다.

둘째, 전문가 원천으로는 교수, 변호사 등을 들 수 있다. 전문적인 구전을 탐색하는 경우는 고 관여 상황으로서 개인적 원천보다 더 나은 정보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신념에서 비롯된다. 개인적 정보는 대개 해당 기업에게서 받은 서비스에 관한 경험인 경우가 많지만, 전문가 정보는 특히 소비자의 지식이 적은 경우, 희망 서비스 수준이나 이상적 서비스 수준이 어떠한지 알아야 하는지 알게 해 주기 때문에 중요하다.

셋째, 구전은 광고의 방법론상으로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세제광고나 의약품광고 등에서 증언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그것이 소비자에게 파생

된 정보원천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또한 구전은 문서자료에 비해 생생한 자료가 되며, 그래서 더 큰 효과를 가지며 기업의 의도적 커뮤니케이션에 비해 신뢰성이 높다. 또한 동시에 여러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치기에 이 구전에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권오기, 2003).

이상환과 이재철(2001)은 구전을 사람의 입을 통해 소문의 형식으로 전달되는 비공식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써 퍼블리시티와 같이 고객에 의해 높은 신뢰성을 가진 정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구전이 서비스의 경우 무형이며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의해 전달되는 특성상 그 역할이 제품에 비해 더욱 중요하다고 밝혔다.

나. 참여 후 행동 관련 연구

어떤 행위에 대한 지속적·수단적 중요성에 대한 강조는 소비자의 자아 개념과 욕구 등의 소비자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하였다. Ewing(1981)에 의하면, 스포츠 참여동기와 관련하여 높은 과제-자아 지향적인 개인은 스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으나 낮은 과제 지향적 개인은 지속적으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안창규(1999)의 선행연구에 따르면 스포츠에 대한 자의식 수준에 관계없이 스포츠 소비자들은 지속적인 참여행동에 있어서 준거집단의 요인보다는 스포츠 참여동기의 외적동기에 더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고, Wankel(1993)에 의하면 즐거움 지향은 지속적인 활동에의 관여를 촉진시켜주며, 참여자에게 더 많은 건강의 이익을 제공하여 주고, Boothby, Tungatt & Townsend(1981)는 즐거움의 지향정도가 결국 참여자로 하여금 스포츠 프로그램으로부터의 탈퇴를 가름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고 하였다. 그동안 여가활동에 대한 참여를 결정하는 다양한 심리 사

회적 요인들은 많은 여가 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오고 있으나,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개념적으로 통합시켜주는 이론적 기틀은 아직 잘 구축되어 있지 않다(Ajzen & Drive, 1992)고 지적하였던 것처럼 스포츠에 지속적인 참가에 대한 다양한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이 연구의 대상자의 특성은 <표 3-1>과 같다. 총 응답자는 459명으로 남자가 415명(90.4%)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령은 22세가 141명(30.7%)으로 가장 많았으며, 21세 122명(26.6%), 23세 84명(18.3%)의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여부는 미혼이 449명(97.8%)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소득에서는 100만 원 이하가 277명(60.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0만원 이상이 108명(23.5%), 101만원~300만원 미만인 74명(16.1%)의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은 요트가 136명(29.6%)으로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스포츠잠수 및 기타종목이 129명(28.1%)으로 나타났다. 주당 횟수는 1회가 243명(52.9%)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주3회 이상이 158명(34.4%)로 다음을 차지하였다. 해양스포츠 이용시간은 1시간~1시간30분 미만이 182명(39.7%), 이용경력은 1년 미만이 194명(42.3%)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직업으로는 학생이 256명(5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무직이 130명(28.3%)으로 나타났다.

<표 3-1>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자	415	90.4
	여자	44	9.6
연령	20세 이하	40	8.7
	21세	122	26.6
	22세	141	30.7
	23세	84	18.3
	24세	44	9.6
	25세 이상	28	6.1
결혼여부	기혼	10	2.2
	미혼	449	97.8
소득	100만원 미만	277	60.3
	100~300만원 미만	74	16.1
	300만원 이상	108	23.5
참여종목	서핑	65	14.2
	스포츠잠수(스킨다이빙 · 스쿠버 다이빙)	129	28.1
	요트	136	29.6
	기타종목	129	28.1
주당횟수	주1회	243	52.9
	주2회	58	12.6
	주3회 이상	158	34.4
이용시간	30분 미만	71	15.5
	1시간미만	105	22.9
	1시간 30분 미만	182	39.7
	1시간 30분 이상	101	22.0
이용경력	1년 미만	194	42.3
	1년	117	25.5
	2년 이상	148	32.2
직업	사무직	130	28.3
	학생	256	55.8
	기타	73	14.2

2. 조사도구

가. 조사도구의 구성

이 연구의 연구문제를 구명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설문문항은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이미 신뢰성과 타당성이 입증된 설문지를 사용하였으며,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및 재구성하였다. 설문지 구성은 <표 3-2>와 같다.

<표 3-2> 측정도구의 구성

구성 지표	구성내용	문항 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연령, 결혼여부, 소득, 해양스포츠 종류, 주당횟수, 활동시간, 경력, 직업	9
참여제약요인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	9
참여동기	기술발달, 즐거움, 성취 조건, 사교, 건강 체력, 외적과시 무동기	34
인지된 가치	인지된 가치	5
참여 후 행동	재참여의도, 구전의도	7
	계	64

1) 참여제약요인

Jackson(1988)은 특정한 행동에 참여하지 못하는데 대한 일련의 이유들로 여가제약을 정의하고 있으며, 사회·심리학적으로 볼 때, 내적인 심리 상태, 태도, 성격, 그리고 개인의 행동을 이끄는 외적인 환경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되기도 한다(Crawford & Godbey(1987)). 이 연구에서 사용할 참여제약 설문지는 Crawford, Jackson & Godbey(1991)가 개발하고, 김정희(1997), 한경숙, 유병렬(2003), 김준 등(2007)이 번안, 사용한 여가제약 및 참여제약 요인의 척도를 이 연구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으며, 내재적, 구조적, 대인적 제약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9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 참여동기

이 연구에서 사용할 참여동기 설문지는 Vallerand(1992)등이 개발한 SMS-28(Sport Motivation Scale)과 Weissinger & Bandalos(1995)의 LIM(Leisure Intrinsic Motivation)을 기초로 정용각(1997)이 한국어로 번안하여 표준화 시킨 설문지를 소진수(2009)가 사용하였으며 이를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 및 재구성 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34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인지된 가치

이용자(참여자)에 의해 인지된 가치는 참여자의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의견, 신념, 태도, 흥미 등 포괄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대해 Oh(1999)는 인지된 가치에 대해 인지된 품질과 인지된

심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금전적 희생간의 교환이라고 하였으며, Bolton & Drew(1991)는 인지된 가치는 금전적 가치 이외에 시간적 비용, 고객의 기호 고객특성, 특정상황과 배경, 상징적인 것, 지각된 품질 등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고 주장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인지된 가치 설문지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인지된 가치는 지불한 비용과 시간에 대한 고객의 평가, 지불한 가격에 대해서 고객이 제공받은 품질이라고 정의한다. 인지된 가치는 Oh(1999)의 연구와 김오성(2010)의 연구를 바탕으로 이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였으며,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참여 후 행동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 후 행동은 참여자의 경험과 행동에 다양한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제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해양스포츠 참가의 선택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재참여 의도와 구전의도는 소비행동의 특수 형태로 직접 참가한 참여자들로부터 이루어진다. 이 연구에서 사용할 참여 후 행동에 대한 설문지는 Engel과 Blackwell and Miniard(1995)가 제시한 소비자(이용객)의 의사결정과정에서 토대로 김철우(2004)의 스포츠관광의 참여동기, 관광지 속성평가가 재참가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과 지삼엽, 이재빈, 배영훈(2009)의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이용객의 시설만족도가 재방문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이재빈, 배영훈, 지삼엽(2009)의 마리아 이용객의 시설만족이 방문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등의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연구자가 재구성하였다. 또한 각 문항은 7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도록 하였으며 총 7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3. 조사절차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제약을 파악하고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연구대상은 부산, 경남지역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진행하였다. 또한 이 연구의 연구자와 보조 조사원이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송정해수욕장, 광안리 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과 경남(창원, 진주, 사천, 거제도)을 직접 방문,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참여자들에게 직접 설문지를 배포하고, 이 연구의 취지를 간단히 설명, 응답 요령 및 주의사항을 인지시킨 후 자기평가기입식으로 응답,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엑셀에 코딩하기 전 불충분한 답변을 한 응답자들은 미리 제거하고, 자료를 입력하였다. 또한 입력 후, 불성실한 응답들을 제외 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4. 자료처리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응답자들의 인구통계를 빈도 분석을 통해 분석하고,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측정도구를 이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차이를 파악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고,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또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은 VIF지수를 통해 파악하였다.

이 연구는 분석을 위해 SPSS 12.0을 이용하였고,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인구통계학: 빈도분석 실시
- 2) 타당성 및 신뢰성: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분석
- 3)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차이 분석: 독립집단 t-test 및 ANOVA, 사후검정 실시
- 4)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영향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 다중공선성 검정, 입력방식: enter 방식
- 5)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습니다.

5. 타당성 및 신뢰성 검정

타당성이란 측정을 위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이나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측정한 개념이나 속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개발된 측정도구가 해당 속성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하느냐의 정도를 나타내므로 결국 측정개념이나 속성에 대한 개념적·조작적 정의 타당성을 의미하게 된다.

신뢰성이란 측정하고자 하는 현상이나 대상을 얼마나 일관성 있게 측정하였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안정성(stability), 일관성(consistency), 예측가능성(predictability)이라고 표현한다. 신뢰성은 어떠한 측정대상을 반

복적으로 측정하는 경우 동일한 결과값을 얼마나 많이 얻을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여러 번 반복 측정해서 얻은 측정 결과값들의 분산으로 신뢰성을 판단할 수 있다. 측정방법에는 재검사법, 반분법, 내적일관성 등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내적일관성을 보기 위해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여 신뢰성을 평가하였다.

작성된 설문지는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 기법 (Exploratory factor analytic technique)을 이용하여, 응답자 459명에게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대한 문항을 varimax 방법으로 아래와 같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지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을 구해 사용하였다.

가. 참여제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참여제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참여제약의 설문문항 9개 변수 중 요인적재 값이 0.6이하이고, 다른 요인과 겹친 변수가 없어 9개 문항 3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3개의 요인 중 요인 1은 고유값이 2.422로 나타나 내재적 제약, 요인 2는 2.360로 나타나 구조적 제약, 요인 3은 2.314로 나타나 대인적 제약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총 설명력은 78.84%였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각각의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851~0.879로 나타나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 후 각 요인별 설문문항은 다음 <표 3-3>과 같다.

<표 3-3> 참여제약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개념	변수	설문문항
내재적 제약	제약2	2. 가족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하고 싶다
	제약3	3.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한다면 친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선택할 것이다.
	제약1	1. 나는 수줍음을 잘 타서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시작하기가 부담스럽다.
구조적 제약	제약5	5. 친한 사람들이 바빠서 함께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시작하기 어렵다
	제약4	4. 친한 사람들이 함께 해양스포츠를 할 수 없다면 하고 싶지 않다
	제약6	6. 나와 친한 사람들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나와 함께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하기 어렵다.
대인적 제약	제약9	9. 시간이 없다면 나는 새로운 해양스포츠 활동을 시작할 것 같지 않다.
	제약8	8. 해양스포츠 활동의 시설이 편리하지 않다면 새롭게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제약7	7. 다른 일에 얽매어 있을 때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하고 싶은 생각 들지 않는다.

<표 3-4> 참여제약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변수	Factor1	Factor2	Factor3
내재적 제약	제약2	0.908	0.092	0.097
	제약3	0.901	0.006	0.090
	제약1	0.872	0.006	0.058
구조적 제약	제약5	0.020	0.908	0.017
	제약4	0.022	0.879	0.038
	제약6	0.056	0.866	0.041
대인적 제약	제약9	0.076	-0.005	0.886
	제약8	0.051	0.045	0.880
	제약7	0.111	0.058	0.855
고유값		2.422	2.360	2.314
누적분산		26.907	53.134	78.848
신뢰도계수값		0.879	0.862	0.851

나. 참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참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참여동기의 설문문항 34개 변수 중 요인적재 값이 0.6이하이고 다른 요인과 겹친 변수 12개를 제외한 22개 문항 5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5개의 요인 중 요인 1은 고유값이 3.977로 나타나 컨디션/성취감, 요인 2는 3.674로 나타나 건강/체력, 요인 3은 3.060으로 나타나 무동기, 요인 4는 2.946으로 나타나 기술발달, 요인 5는 2.793으로 나타나 즐거움을 설명해주고 있으며 총 설명력은 74.77%였다. 정용각(1997)의 연구에서는 성취감과 컨디션이 따로 구분되었으며, 건강/체력 또한 이 연구결과와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구성된 컨디션/성취감은 문항 검토 결과, 컨디션과 성취감으로 이름을 명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며, 건강/체력 또한 문항들이 건강과 체력에 대한 문항으로 건강/체력으로 구성개념의 이름을 명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각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850~0.926으로 나타나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 후 각 요인별 설문문항은 다음 <표 3-5>와 같다.

<표 3-5> 참여동기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개념	변수	설문문항
컨디션/ 성취감	동기5	5. 해양스포츠를 하고 나면 상쾌하다.
	동기14	14. 해양스포츠를 하면 컨디션이 좋아진다.
	동기17	17. 해양스포츠는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
	동기21	21. 해양스포츠를 하면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
	동기22	22. 해양스포츠를 하면 가끔 희열감을 느낀다.
건강/ 체력	동기9	9. 해양스포츠를 하면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
	동기16	16. 해양스포츠는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
	동기20	20. 해양스포츠를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해 질 것이다.
	동기4	4. 해양스포츠를 하면 체력이 향상된다고 느낀다.
	동기18	18. 해양스포츠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 진다.
무동기	동기10	10. 해양스포츠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동기15	15. 해양스포츠는 나에게 안 맞다.
	동기25	25. 해양스포츠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동기33	33. 해양스포츠가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기술발달	동기27	27. 해양스포츠를 하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배운다.
	동기29	29. 해양스포츠의 새로운 기술 때문에 재미있다.
	동기32	32. 해양스포츠의 기술이 점차 발달할수록 즐겁다.
	동기30	30. 해양스포츠의 새로운 운동방법을 배울 수 있다.
즐거움	동기2	2. 해양스포츠를 할때 쾌감을 느낀다.
	동기1	1. 해양스포츠를 하면 재미있다.
	동기3	3. 해양스포츠를 하면 활기찬 기분을 느낀다.
	동기23	23. 해양스포츠를 하면 완전히 몰입한다.

<표 3-6> 참여동기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변수	Factor1	Factor2	Factor3	Factor4	Factor5
컨디션/ 성취감	동기5	0.887	0.142	-0.041	0.004	0.225
	동기14	0.882	0.195	-0.041	0.049	0.178
	동기17	0.880	0.103	-0.019	0.031	0.188
	동기21	0.810	0.238	-0.018	0.020	0.227
	동기22	0.673	0.370	-0.001	0.043	0.187
건강/ 체력	동기9	0.167	0.828	0.137	-0.004	0.177
	동기16	0.093	0.825	0.211	-0.053	0.115
	동기20	0.282	0.763	0.010	0.022	0.359
	동기4	0.272	0.761	0.064	-0.122	0.198
	동기18	0.241	0.738	0.065	-0.011	0.359
무동기	동기10	-0.072	0.128	0.846	-0.267	0.028
	동기15	-0.070	0.120	0.835	-0.273	0.069
	동기25	-0.008	0.117	0.825	-0.212	0.041
	동기33	0.036	0.062	0.770	-0.257	0.178
기술발달	동기27	-0.032	0.015	-0.213	0.848	0.001
	동기29	-0.021	-0.002	-0.304	0.845	0.017
	동기32	0.056	-0.070	-0.192	0.802	-0.055
	동기30	0.110	-0.058	-0.235	0.765	0.126
즐거움	동기2	0.287	0.214	0.011	0.015	0.802
	동기1	0.240	0.263	0.060	0.041	0.782
	동기3	0.294	0.265	0.085	0.031	0.762
	동기23	0.164	0.309	0.239	-0.002	0.594
고유값		3.977	3.674	3.060	2.946	2.793
누적분산		18.077	34.776	48.686	62.079	74.775
신뢰도 계수값		0.926	0.907	0.893	0.873	0.850

다. 인지된 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인지된 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8>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인지된 가치의 설문문항 5개 변수 중 요인적재 값이 0.6 이하이며, 고유값이 1이상으로 5개 문항이 1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은 고유값이 3.797로 나타나 인지된 가치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총 설명력은 75.94%였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0.919로 나타나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요인분석 후 각 요인별 설문문항은 다음 <표 3-7>와 같다.

<표 3-7> 인지된 가치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개념	변수	설문문항
인지된 가치	인지된 가치3	3. 해양스포츠 참가는 나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인지된 가치1	1. 해양스포츠 참가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인지된 가치4	4. 해양스포츠 참가는 생각만큼 가치가 있다.
	인지된 가치5	5. 해양스포츠 참가로 인해 나의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
	인지된 가치2	2. 해양스포츠 참가를 위한 투자(비용, 시간 등)는 아깝지 않다.

<표 3-8> 인지된 가치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변수	Factor1
인지된 가치	인지된 가치3	0.909
	인지된 가치1	0.884
	인지된 가치4	0.878
	인지된 가치5	0.853
	인지된 가치2	0.832
	고유 값	3.797
	누적분산	75.945
	신뢰도계수 값	0.919

라. 참여 후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및 신뢰도 분석

참여 후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는 <표 3-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 결과, 참여 후 행동의 설문문항 7개 변수 중 요인적재 값이 0.6이하이고 다른 요인과 겹친 변수가 없어 7개 문항을 5개의 요인을 구성하였다. 요인 1은 고유값이 3.019로 나타나 재참여의도, 요인 2는 2.556으로 나타나 구전의도를 설명해주고 있으며, 총 설명력은 79.64%였다. 또한 신뢰성 분석 결과, 요인의 Cronbach's α 값이 재참여의도는 0.900, 구전의도는 0.895로 나타나 사용된 설문지는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3-9> 참여 후 행동에 대한 설문문항

구성개념	변수	설문문항
재참여의도	행동3	3. 확실히 다시 참여할 것이다.
	행동1	1. 다시 참여할 것이다.
	행동2	2.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행동4	4. 다시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구전의도	행동6	6.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 할 것이다.
	행동7	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행동5	5.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다.

<표 3-10> 참여 후 행동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구성개념	변수	Factor1	Factor2
재참여의도	행동3	0.887	0.228
	행동1	0.856	0.302
	행동2	0.825	0.206
	행동4	0.771	0.335
구전의도	행동6	0.226	0.893
	행동7	0.305	0.866
	행동5	0.283	0.844
고유값		3.019	2.556
누적분산		43.124	79.643
신뢰도 계수값		0.900	0.895

IV. 연구결과

1. 구성개념의 기초통계량

구성개념에 대한 기초통계량을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의 평균은 4.81(1.32)로 나타났고, 구조적 제약의 평균은 4.26(1.32), 대인적 제약의 평균은 4.82(1.18)로 나타났다. 컨디션/성취감의 평균은 5.16(1.13)으로 나타났고, 건강/체력의 평균은 4.70(1.11), 즐거움의 평균은 4.94(1.04), 기술발달의 평균은 4.55(1.27), 무동기의 평균은 4.20(1.40)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가치의 평균은 5.22(1.14)로 나타났고, 재참여의도의 평균은 5.11(1.14), 구전의도의 평균은 5.34(1.12)로 나타났다.

<표 4-1> 기초통계량

구성개념	평균	표준편차
내재적 제약	4.81	1.32
구조적 제약	4.26	1.32
대인적 제약	4.82	1.18
컨디션/성취감	5.16	1.13
건강/체력	4.70	1.11
즐거움	4.94	1.04
기술발달	4.55	1.27
무동기	4.20	1.40
인지된 가치	5.22	1.14
재참여의도	5.11	1.14
구전의도	5.34	1.12

2.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차이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제약, 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분석방법(t-test, ANOVA)을 사용하였으며, 유의수준은 5%로 설정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본의 특성을 고려하여 참여종목, 주당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경력, 직업, 월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가.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제약

1) 월 소득과 참여제약의 차이

소득과 참여제약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의 경우 300만원 이상의 평균이 5.02(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구조적 제약은 100만원 미만과 300만원 이상, 대인적 제약은 300만원 이상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 월 소득에 따른 참여제약

구분	월 소득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내재적 제약	100만미만 ^a	277	4.81	1.35	3.255*	c>a>b
	100~300만 미만 ^b	74	4.52	1.36		
	300만 이상 ^c	108	5.02	1.19		
구조적 제약	100만미만	277	4.27	1.36	0.090	
	100~300만 미만	74	4.20	1.31		
	300만 이상	108	4.27	1.26		
대인적 제약	100만미만	277	4.82	1.21	0.460	
	100~300만 미만	74	4.71	1.29		
	300만 이상	108	4.88	1.04		

*: $p<0.05$

2) 참여종목과 참여제약과의 차이

참여종목과 참여제약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조적 제약의 경우 서핑을 이용하는 경우 평균이 4.60(1.6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재적 제약은 요트, 대인적 제약은 요트가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 참여종목에 따른 참여제약

구분	주당 이용횟수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내재적 제약	서핑	65	4.81	1.48	0.191	
	스포츠잠수	129	4.81	1.36		
	요트	136	4.87	1.23		
	기타종목	129	4.75	1.31		
구조적 제약	서핑 ^a	65	4.60	1.60	4.619**	a,d>c>b
	스포츠잠수 ^b	129	3.95	1.36		
	요트 ^c	136	4.22	1.09		
	기타종목 ^d	129	4.43	1.31		
대인적 제약	서핑	65	4.87	1.11	0.760	
	스포츠잠수	129	4.70	1.18		
	요트	136	4.91	1.24		
	기타종목	129	4.8	1.17		

** : $p < 0.01$

3) 주당 이용횟수와 참여제약과의 차이

주당 이용횟수와 참여제약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대인적 제약의 경우 주 2회의 평균이 4.91(1.2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5$)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은 주 1회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주당 이용횟수에 따른 참여제약

구분	주당 이용횟수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내재적 제약	주1회	144	4.88	1.25	0.464	
	주2회	247	4.76	1.37		
	주3회 이상	68	4.86	1.33		
구조적 제약	주1회	144	4.43	1.26	1.914	
	주2회	247	4.21	1.33		
	주3회 이상	68	4.09	1.43		
대인적 제약	주1회a	144	4.81	1.06	3.075*	b,a>c
	주2회b	247	4.91	1.20		
	주3회 이상c	68	4.51	1.33		

*:p<0.05

4) 이용시간과 참여제약과의 차이

이용시간과 참여제약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1시간30분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이용시간에 따른 참여제약

구분	이용시간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내재적 제약	30분 미만	71	4.47	1.47	2.328	
	1시간 미만	105	4.89	1.44		
	1시간 30분 미만	182	4.80	1.28		
	1시간 30분 이상	101	4.99	1.14		
구조적 제약	30분 미만	71	4.31	1.42	0.424	
	1시간 미만	105	4.23	1.34		
	1시간30분 미만	182	4.19	1.31		
	1시간30분 이상	101	4.37	1.28		
대인적 제약	30분 미만	71	4.80	1.17	0.484	
	1시간 미만	105	4.82	1.23		
	1시간 30분 미만	182	4.76	1.17		
	1시간 30분 이상	101	4.93	1.17		

5) 이용경력과 참여제약과의 차이

이용경력과 참여제약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1년 미만, 구조적 제약은 1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이용경력에 따른 참여제약

구분	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내재적 제약	1년 미만	211	4.85	1.35	0.324	
	1년	120	4.73	1.29		
	2년 이상	128	4.83	1.33		
구조적 제약	1년 미만	211	4.30	1.32	0.976	
	1년	120	4.33	1.33		
	2년 이상	128	4.12	1.32		
대인적 제약	1년 미만	211	4.86	1.18	0.340	
	1년	120	4.74	1.23		
	2년 이상	128	4.82	1.15		

6) 직업과 참여제약과의 차이

직업과 참여제약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조적 제약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4.46(1.2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p<0.05$)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대인적 제약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5.19(1.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p<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내재적 제약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직업에 따른 참여제약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내재적 제약	사무직	130	4.73	1.37	2.326	
	학생	256	4.76	1.32		
	기타	73	5.11	1.24		
구조적 제약	사무직 ^a	130	3.99	1.33	4.096*	c,b>a
	학생 ^b	256	4.34	1.32		
	기타 ^c	73	4.46	1.25		
대인적 제약	사무직 ^a	130	4.69	1.20	4.605*	c>b,a
	학생 ^b	256	4.77	1.18		
	기타 ^c	73	5.19	1.10		

*: p<0.05

나.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 동기

1) 월 소득과 참여 동기의 차이

소득과 참여동기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컨디션/성취감, 건강/체력, 즐거움, 기술발달은 100만원 미만, 무동기는 100만~300만원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월 소득에 따른 참여동기

구분	월 소득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컨디션/ 성취감	100만미만	277	5.18	1.17	0.166	
	100~300만 미만	74	5.09	1.00		
	300만 이상	108	5.17	1.09		
건강/체력	100만미만	277	4.75	1.12	1.273	
	100~300만 미만	74	4.52	1.18		
	300만 이상	108	4.73	1.03		
즐거움	100만미만	277	4.99	1.07	0.888	
	100~300만 미만	74	4.81	1.04		
	300만 이상	108	4.90	0.96		
기술발달	100만미만	277	4.62	1.31	2.368	
	100~300만 미만	74	4.26	1.19		
	300만 이상	108	4.55	1.20		
무동기	100만미만	277	4.18	1.45	0.427	
	100~300만 미만	74	4.34	1.20		
	300만 이상	108	4.18	1.41		

2) 참여 종목과 참여동기와의 차이

참여종목가과 참여동기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건강/체력의 경우 서평의 평균이 4.92(1.1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술발달의 경우 서평의 평균이

4.79(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무동기의 경우 스포츠잠수의 평균이 4.74(1.2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컨디션/성취감 서핑이, 즐거움은 서핑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참여종목에 따른 참여동기

구분	이용시간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컨디션/ 성취감	서핑	65	5.29	1.34	0.544	
	스포츠잠수	129	5.09	1.01		
	요트	136	5.12	1.00		
	기타종목	129	5.21	1.24		
건강/체력	서핑 ^a	65	4.92	1.13	4.296**	a,d>c>b
	스포츠잠수 ^b	129	4.49	0.98		
	요트 ^c	136	4.61	1.10		
	기타종목 ^d	129	4.91	1.19		
즐거움	서핑	65	5.19	1.15	1.512	
	스포츠잠수	129	4.91	0.85		
	요트	136	4.91	1.02		
	기타종목	129	4.87	1.16		
기술발달	서핑 ^a	65	4.79	1.46	8.299***	a,d,c>b
	스포츠잠수 ^b	129	4.09	1.18		
	요트 ^c	136	4.67	1.25		
	기타종목 ^d	129	4.75	1.17		
무동기	서핑 ^a	65	3.98	1.52	9.776***	b>c,a>d
	스포츠잠수 ^b	129	4.74	1.26		
	요트 ^c	136	4.08	1.33		
	기타종목 ^d	129	3.91	1.41		

***: $p<0.01$, **: $p<0.01$

3) 주당 이용횟수와 참여동기와의 차이

주당 이용횟수와 참여동기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컨디션/성취감의 경우 주1회의 평균이 5.38(1.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건강/체력의 경우 주1회의 평균이 4.96(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의 경우 주1회의 평균이 5.16(0.9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기술발달의 경우 주1회의 평균이 4.88(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무동기의 경우 주2회의 평균이 4.39(1.3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표 4-10> 주당 이용횟수에 따른 참여동기

구분	주이용 횟수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컨디션/ 성취감	주1회 ^a	144	5.38	1.10	4.829**	a,c>b
	주2회 ^b	247	5.02	1.10		
	주3회 이상 ^c	68	5.23	1.23		
건강/체력	주1회 ^a	144	4.96	1.03	6.295**	a>c>b
	주2회 ^b	247	4.55	1.08		
	주3회 이상 ^c	68	4.73	1.28		
즐거움	주1회 ^a	144	5.16	0.97	8.760***	a,c>b
	주2회 ^b	247	4.75	1.06		
	주3회 이상 ^c	68	5.15	0.98		
기술발달	주1회 ^a	144	4.88	1.28	7.437**	a>c,b
	주2회 ^b	247	4.38	1.18		
	주3회 이상 ^c	68	4.45	1.45		
무동기	주1회 ^a	144	3.90	1.31	5.678**	b>c>a
	주2회 ^b	247	4.39	1.36		
	주3회 이상 ^c	68	4.17	1.61		

***: $p<0.001$, **: $p<0.01$

4) 이용시간과 참여동기와의 차이

이용시간과 참여동기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컨디션/성취감의 경우 1시간 30분이상의 평균이 5.39(1.1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건강/체력의 경우 1시간30분 이상의 평균이 4.97(1.1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5$)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의 경우 1시간30분 이상의 평균이 5.25(0.9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기술발달은 1시간미만과 1시간 30분 이상의 평균이 4.70(1.22)과 4.70(1.47), 무동기는 30분 미만의 평균이 4.32(1.1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1> 이용시간에 따른 참여동기

구분	이용시간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컨디션/ 성취감	30분 미만 ^a	71	4.53	1.15	9.822***	d>c,b>a
	1시간미만 ^b	105	5.20	1.02		
	1시간30분 미만 ^c	182	5.25	1.07		
	1시간30분 이상 ^d	101	5.39	1.17		
건강/체력	30분 미만 ^a	71	4.52	1.09	2.886*	d>b,c>a
	1시간미만 ^b	105	4.70	1.14		
	1시간30분 미만 ^c	182	4.63	1.07		
	1시간30분 이상 ^d	101	4.97	1.14		
즐거움	30분 미만 ^a	71	4.46	1.16	8.454***	d>b,c>a
	1시간미만 ^b	105	4.99	1.05		
	1시간30분 미만 ^c	182	4.92	0.95		
	1시간30분 이상 ^d	101	5.25	0.97		
기술발달	30분 미만	71	4.53	0.92	2.129	
	1시간미만	105	4.70	1.22		
	1시간30분 미만	182	4.38	1.29		
	1시간30분 이상	101	4.70	1.47		
무동기	30분 미만	71	4.32	1.19	0.273	
	1시간미만	105	4.13	1.39		
	1시간30분 미만	182	4.22	1.41		
	1시간30분 이상	101	4.17	1.54		

***: $p<0.001$, *: $p<0.05$

5) 이용경력과 참여동기와의 차이

이용경력과 참여동기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컨디션/성취감, 무동기는 1년, 건강/체력, 즐거움은 2년, 기술발달은 1년 미만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이용경력에 따른 참여동기

구분	경력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컨디션/ 성취감	1년 미만	194	5.12	1.09	0.454	
	1년	117	5.24	1.05		
	2년 이상	148	5.16	1.25		
건강/체력	1년 미만	194	4.67	1.11	1.951	
	1년	117	4.60	1.11		
	2년 이상	148	4.86	1.11		
즐거움	1년 미만	194	4.88	1.00	0.889	
	1년	117	4.95	1.08		
	2년 이상	148	5.03	1.07		
기술발달	1년 미만	194	4.60	1.15	0.475	
	1년	117	4.46	1.32		
	2년 이상	148	4.53	1.42		
무동기	1년 미만	194	4.10	1.33	1.487	
	1년	117	4.38	1.37		
	2년 이상	148	4.21	1.54		

6) 직업과 참여동기와의 차이

직업과 참여동기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건강/체력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5.01(1.1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5$)으로 나타났다. 즐거움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5.22(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5$)으로 나타났다. 기

술발달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4.88(1.49)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5$)으로 나타났다. 무동기의 경우 사무직의 평균이 4.65(1.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컨디션/성취감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직업에 따른 참여동기

구분	직업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컨디션/ 성취감	사무직	130	5.02	1.19	2.820	
	학생	256	5.16	1.08		
	기타	73	5.41	1.16		
건강/체력	사무직 ^a	130	4.69	1.18	3.394*	c>a,b
	학생 ^b	256	4.62	1.07		
	기타 ^c	73	5.01	1.11		
즐거움	사무직 ^a	130	4.94	1.05	3.357*	c>a,b
	학생 ^b	256	4.86	1.00		
	기타 ^c	73	5.22	1.12		
기술발달	사무직 ^a	130	4.41	1.28	3.408*	c>b,a
	학생 ^b	256	4.52	1.18		
	기타 ^c	73	4.88	1.49		
무동기	사무직 ^a	130	4.65	1.25	14.556**	a>b>c
	학생 ^b	256	4.15	1.37		
	기타 ^c	73	3.59	1.50		

** : $p<0.01$, * : $p<0.05$

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인지된 가치

소득과 인지된 가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된 가치의 경우 100만원 미만과 300만 원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종목과 인지된 가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된 가치의 경우 서핑에서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모든 종목에서 평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이용횟수와 인지된 가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된 가치의 경우 주1회의 평균이 5.50(1.02)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인지된 가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된 가치의 경우 1시간30분이상의 평균이 5.52(1.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이용경력과 인지된 가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된 가치의 경우 1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인지된 가치와의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된 가치의 경우 기타의 평균이 5.62(1.1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표 4-14>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된 가치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소득	100만미만	277	5.27	1.18	2.371	
	100~300만 미만	74	4.96	1.12		
	300만 이상	108	5.27	1.05		
참여종목	서핑	65	5.38	1.2	0.726	
	스포츠잠수	129	5.13	1.09		
	요트	136	5.2	1.06		
	기타종목	129	5.25	1.25		
주당횟수	주1회 ^a	243	5.50	1.02	7.365**	a>c>b
	주2회 ^b	58	5.05	1.13		
	주3회 이상 ^c	158	5.26	1.31		
이용시간	30분 미만 ^a	71	4.71	1.16	7.745***	d>b,c>a
	1시간미만 ^b	105	5.34	1.14		
	1시간30분 미만 ^c	182	5.19	1.10		
	1시간30분 이상 ^d	101	5.52	1.10		
이용경력	1년 미만	194	5.19	1.08	0.360	
	1년	117	5.30	1.15		
	2년 이상	148	5.20	1.24		
직업	사무직 ^a	130	5.16	1.17	5.465**	c>a,b
	학생 ^b	256	5.14	1.12		
	기타 ^c	73	5.62	1.12		

***: $p<0.001$, **: $p<0.01$

라.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 후 행동

1) 일반적 특성과 재참여 의도의 차이

소득과 참여 후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참여의도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인 자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종목과 참여 후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참여 의도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주당 이용횟수와 재참여 의도의 경우 주1회의 평균이 5.40(1.0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1$)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과 참여 후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참여 의도의 경우 1시간30분이상의 평균이 5.47(1.07)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 < 0.001$)으로 나타났다.

이용경력과 참여 후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참여의도는 1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재참여 의도

구분	주 이용횟수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소득	100만 미만	277	5.11	1.22	1.032	
	100~300만 미만	74	4.96	1.09		
	300만 이상	108	5.21	0.97		
참여종목	서핑	65	5.21	1.34	0.516	
	스포츠잠수	129	5.01	0.98		
	요트	136	5.11	1.14		
	기타종목	129	5.15	1.2		
주당횟수	주1회 ^a	243	5.40	1.06	12.016***	a,c>b
	주2회 ^b	58	4.87	1.09		
	주3회 이상 ^c	158	5.33	1.32		
이용시간	30분 미만 ^a	71	4.58	1.17	9.504***	d>b,c>a
	1시간미만 ^b	105	5.23	1.09		
	1시간 30분 미만 ^c	182	5.04	1.12		
	1시간 30분 이상 ^d	101	5.47	1.07		
이용경력	1년 미만	194	5.10	1.10	0.363	
	1년	117	5.18	1.11		
	2년 이상	148	5.05	1.25		
직업	사무직	130	5.07	1.22	1.634	
	학생	256	5.06	1.06		
	기타	73	5.33	1.25		

***: $p<0.001$

2) 일반적 특성과 구전의도와의 차이

소득과 참여 후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전의도는 300만 원 이상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종목과 참여 후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재참여의 경우 모든 종목에서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이용횟수의 경우 주1회의 평균이 5.56(1.03)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1$)으로 나타났다.

이용시간 경우 1시간 30분 이상의 평균이 5.52(1.0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p<0.001$)으로 나타났다.

이용경력의 경우 1년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과 참여 후 행동과의 차이를 살펴보면 구전의도는 기타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구전 의도

구분	이용시간	N	평균	표준편차	F-value	사후검정
소득	100만원 미만	277	5.34	1.20	0.250	
	100~300만원 미만	74	5.27	1.14		
	300만원 이상	108	5.39	0.89		
참여종목	서핑	65	5.47	1.33	0.466	
	스포츠잡수	129	5.35	1.04		
	요트	136	5.27	1.03		
	기타종목	129	5.35	1.2		
주당	주1회 ^a	243	5.56	1.03	5.705**	a,c>b
이용횟수	주2회 ^b	58	5.18	1.13		
	주3회 이상 ^c	158	5.46	1.22		
이용시간	30분 미만 ^a	71	4.75	1.25	8.581***	d,b,c>a
	1시간 미만 ^b	105	5.49	0.97		
	1시간 30분 미만 ^c	182	5.39	1.14		
	1시간 30분 이상 ^d	101	5.52	1.04		
이용경력	1년 미만	194	5.38	1.06	0.960	
	1년	117	5.39	1.20		
	2년 이상	148	5.22	1.15		
직업	사무직	130	5.36	1.13	0.693	
	학생	256	5.29	1.12		
	기타	73	5.47	1.15		

***: $p<0.001$, **: $p<0.01$

3.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참여제약의 하위변인에는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참여동기는 컨디션/성취감, 건강/체력, 즐거움, 기술발달, 무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할 때 독립변수간의 상관, 즉 다중공선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결과해석에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 한계 및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봐야 한다. 참여제약에 대한 공선성 통계량 값은 <표 4-17>과 같다.

공차한계는 1에 가까울수록 좋으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0을 넘어가면 안 된다. <표 4-17>과 같이 독립변수인 참여제약에 대한 공선성 검토에서 분산팽창요인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독립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7> 참여제약에 대한 다중공선성 검토

독립변수	VIF
내재적 제약	1.039
구조적 제약	1.010
대인적 제약	1.039

참여제약이 컨디션/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134로 13.4%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값은 24.634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참여제약이 컨디션/성취감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표준화계수=-0.331, $p=0.000$), 대인적 제약(표준화계수=-0.107, $p=0.016$)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참여제약에서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컨디션/성취감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으며, 2개의 제약이 증가하면 참여동기 중 컨디션/성취감은 감소한다.

<표 4-18> 참여제약이 컨디션/성취감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t-value	R^2	F-value
컨디션/ 성취감	절편	-3.135	0.284		-11.045***	0.134	24.634***
	내재적 제약	-0.281	0.038	-0.331	-7.463***		
	구조적 제약	-0.043	0.037	-0.050	-1.146		
	대인적 제약	-0.102	0.042	-0.107	-2.420*		

***: $p<0.001$, *: $p<0.05$

참여제약이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181로 18.1%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값은 34.762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참여제약이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

(표준화계수=-0.233, $p=0.000$), 대인적 제약(표준화계수=-0.321, $p=0.000$)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참여제약에서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건강/체력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으며, 2개의 제약이 증가하면 참여동기 중 건강/체력은 감소한다.

<표 4-19> 참여제약이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t-value	R^2	F-value
건강/ 체력	절편	-2.252	0.273		-8.255***	0.181	34.762***
	내재적 제약	-0.196	0.036	-0.233	-5.412***		
	구조적 제약	-0.013	0.036	-0.016	-0.371		
	대인적 제약	-0.302	0.040	-0.321	-7.454***		

***: $p<0.001$

참여제약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111로 11.1%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 값은 20.101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참여제약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내재적 제약(표준화계수=-0.281, $p=0.000$), 대인적 제약(표준화계수=-0.152, $p=0.001$)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참여제약에서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즐거움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으며, 2개의 제약이 증가하면 참여동기 중 즐거움은 감소한다.

<표 4-20> 참여제약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t-value	R^2	F-value
즐거움	절편	-3.264	0.265		-12.294***	0.111	20.101***
	내재적 제약	-0.221	0.035	-0.281	-6.257***		
	구조적 제약	0.006	0.035	0.008	0.184		
	대인적 제약	-0.133	0.039	-0.152	-3.382**		

***:p<0.001, **:p<0.01

참여제약이 기술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081로 8.1%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 값은 14.389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참여제약이 기술발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구조적 제약(표준화계수=-0.238, p=0.000), 대인적 제약(표준화계수=-0.108, p=0.018)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참여제약에서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기술발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2개의 제약이 증가하면 참여동기 기술발달은 감소한다.

<표 4-21> 참여제약이 기술발달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t-value	R^2	F-value
기술 개발	절편	-2.607	0.330		-7.894***	0.081	14.389***
	내재적 제약	-0.085	0.044	-0.089	-1.942		
	구조적 제약	-0.228	0.043	-0.238	-5.274***		
	대인적 제약	-0.116	0.049	-0.108	-2.364*		

***:p<0.001, *:p<0.05

참여제약이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057로 5.7%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 값은 10.152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참여제약이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구조적 제약(표준화계수=0.247, $p=0.000$)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참여제약에서 구조적 제약은 무동기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구조적 제약이 증가하면 무동기는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2> 참여제약이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t-value	R^2	F-value
무 동 기	절편	-5.269	0.369		-14.290***	0.057	10.152***
	내재적 제약	-0.046	0.049	-0.043	-0.932		
	구조적 제약	0.261	0.048	0.247	5.412***		
	대인적 제약	+0.036	0.055	+0.030	+0.656		

***: $p < 0.001$

4.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독립변수인 참여동기의 하위변인에는 컨디션/성취감, 건강/체력, 즐거움, 기술발달, 무동기로 구성되어 있다.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할 때 독립변수간의 상관, 즉 다중공선성 등을 고려해야 하며, 이를 무시할 경우 결과해석에 심각한 문제점이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독립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위험 여부를 검토하기 위해 공차 한계 및 분산팽창요인(VIF)을 살펴봐야 한다. 참여동기에 대한 공선성 통계량 값은 <표 4-23>와 같다.

공차한계는 1에 가까울수록 좋으며, 분산팽창요인(VIF)은 10을 넘어가면 안 된다. <표 4-23>과 같이 독립변수인 참여제약에 대한 공선성 검정에서 분산팽창요인이 10을 넘지 않으므로, 독립변수에 대한 다중공선성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23> 참여동기에 대한 다중공선성 검정

독립변수	VIF
컨디션/성취감	1.616
건강/체력	1.803
즐거움	1.933
기술발달	1.585
무동기	1.445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515로 51.5%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값은 98.093으로 $p<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컨디션/성취감(표준화계수=0.251, $p=0.000$), 건강/체력(표준화계수=0.223, $p=0.000$), 즐거움(표준화계수=0.377, $p=0.000$)은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참여동기에서 컨디션/성취감, 건강/체력, 즐거움은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3개의 동기가 증가하면 인지된 가치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4>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t-value	R^2	F-value
인지된 가치	절편	0.815	0.307		2.656**	0.515	98.093***
	컨디션/ 성취감	0.255	0.042	0.251	6.070***		
	건강/체력	0.229	0.045	0.223	5.109***		
	즐거움	0.415	0.050	0.377	8.339***		
	기술발달	-0.007	0.037	-0.008	-0.190		
	무동기	-0.002	0.032	-0.002	-0.062		

***: $p<0.001$, **: $p<0.01$

5.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인지된 가치가 재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548로 54.9%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 값은 556.409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지된 가치가 재참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는 0.741, p-value는 0.000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인지된 가치는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인지된 가치가 증가하면 재참여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인지된 가치가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정계수를 검정한 결과, R^2 값은 0.513로 51.3%를 설명하고 있으며,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한 결과, F 값은 483.118로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인지된 가치가 구전 의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표준화계수는 0.717, p-value는 0.000으로 유의수준 5%에서 유의하다. 즉 인지된 가치는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인지된 가치가 증가하면 구전 의도 또한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다.

<표 4-25> 인지된 가치가 참여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종속 변수	독립 변수	비표준화 계수	S.E	표준화 계수	t-value	R^2	F-value
재참여 의도	절편 인지된 가치	1.237 0.741	0.168 0.031		7.367*** 23.588***	0.548	556.409***
구전 의도	절편 인지된 가치	1.660 0.705	0.171 0.032	0.741 0.717	9.682*** 21.980***		

***: $p < 0.001$

V. 논의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제약과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관계를 구명하는 것으로, 각 개념들에 대한 요인분석 후,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개념들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참여제약, 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관계를 통해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대해 알아보았다.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참여제약, 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제약, 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평균차이 분석방법(t-test, ANOVA)을 사용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은 해양스포츠 주당 이용횟수, 이용시간, 이용경력, 직업, 월 소득으로 분류하였다. 참여제약은 내재적 제약,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으로 분류하고, 참여동기는 컨디션/성취감, 건강/체력, 즐거움, 기술발달, 무동기로 분류하였다. 또한 참여 후 행동은 재참여 의도와 구전의도로 분류하였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제약의 차이를 살펴보면 이용횟수에 따라 대인적 제약이 차이가 있었으며 주2회 이용하는 경우 대인적 제약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참여자의 직업에 따라서 구조적 제약과 대인적 제약이 차이가 있었으며, 기타 직업에서 가장 높은 평균값이 나왔다. 월 소득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월 소득이 높을 경우 내재적 제약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omsa & Hoffman(1980)은 여가활동에 비참

여와 참여에 대한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참여에 있어 수동적인 집단에서는 흥미부족이 주된 제약의 이유이지만, 능동적인 집단에서는 시설, 시간, 비용 등의 구조적 장애가 여가활동제약의 주된 원인으로 설명하고 있다.

박원임(1976)은 모든 연령층이 공통적으로 여가저해 요인으로 '시간부족'이 많은 영향력을 주고 있다고 제시하였으며, 김규호(1986)에서도 시간과 돈의 부족이 도시민의 여가활동에 있어서 불만족스럽게 만드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김형용(2005)은 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레저스포츠 참여제약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연령과 소득수준에서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있었다. 김현나(2006)는 레포츠 참여제약에 대해 연구하였으며, 직업에 따라 참여제약 모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요리사, 건축업, 과학자등에서 제약에 가장 높게 나왔다. 오효위(2007)의 연구에서는 경제수준에 따른 인간상호, 구조적 제약이 영향을 받는다는 결과가 나타났다으며, 이는 경제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반응을 갖게 되는 대학생들의 특색을 나타내주는 결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연구대상자가 대학생이라는 한계점을 갖는다. 임영삼(2008)의 연구에서는 축구동호인의 스포츠 참여활동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여가제약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성별과 연령, 학력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직업에 따라서는 평균차이가 거의 없다고 하여 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방문객들은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직업이나 소득 그리고 해양스포츠를 참여하는 형태에 따라 참여를 제약하는 특징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주 2회 해양스포츠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은 대인적 제약을 받게 되고, 이는 대인관계에서 오는 부수적인 제약으로 볼 수 있으며, 동반한 참여자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월 소득이 높을수록 내재적 제약이 높아지는데, 내재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쉽다. 따라서 소득이 높아 안정적인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해양스포츠를 이용함에 있어 개인의 심리적 수준에 따라 달라지며 이로 인해 내재적 제약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직업 또한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기타직업 즉, 전문직이나 전문 관리직, 또는 기타의 직업들에서는 재정적 출처, 시설 및 서비스 관련문제, 가족생활주기, 근무일정, 계절, 기후, 기회의 비실용성 등과 같이 개인적 문제와 관련된 제약이 높을 수 있는데, 이는 구조적 제약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제약들로 인해 참여자들의 참여의도를 줄이게 된다면, 이는 해양스포츠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제약조건들을 완화시킬 수 있는 해양스포츠의 다양한 이벤트나 낡은 제도에 대한 개선이 각각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동기에 대한 차이를 보면 이용횟수에 따라, 컨디션/성취감, 건강/체력, 즐거움, 기술발달, 무동기 등 모든 참여동기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 1회 이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이고 있다. 이용시간에 대해서는 컨디션, 건강/체력, 즐거움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1시간 30분을 이용하는 경우 가장 높은 참여동기를 보이고 있다. 직업에 따라 참여동기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건강/체력의, 즐거움, 기술발달, 무동기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형용(2005)의 연구에서도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참여동기에는 부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고 하였다.

White(1975)는 스포츠 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수에 관한 연구를 통해 소득수준이 중요한 변수가 됨을 지적하였으며, 스포츠 활동 참여에 관한 연구조사결과 소득수준에 따라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즉, 개인의 소

득수준은 스포츠 참여동기에 있어서 많은 영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은진(2007)의 수영참여자의 참가 동기에 대해, 소득수준에 따라 참가 동기(참여동기) 중 체력, 재미, 해소, 활력 및 심리, 체형 요인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수영참여자는 몸이 개운해지거나 기분이 좋아지는 것을 위해 수영에 참가한다거나 체력의 증진과 스트레스의 해소, 수영집단에서의 친목도모를 위한 활동뿐만 아니라 수영 그 자체의 재미를 느껴 수영을 선호하고 지속적으로 참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정호(2010)는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경력에 따라 참여동기에는 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성별에 대한 연구는 표본의 제약으로 하지 않았지만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Petrie(1971)는 남학생은 위험, 기술, 경쟁 등의 동기에 의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고, 여학생은 사회적 상호작용, 즐거움, 미적동기에 의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다고 밝혀 성별에 따라 스포츠참여에는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Kenyon(1970)은 연령과 성차가 스포츠참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하여 반드시 참여동기를 달리 하는 것이 어떤 다른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음을 밝혔다.

해양스포츠를 참가하는 참여자들은 여러 제약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원하는 해양스포츠를 즐기게 된다. 해양스포츠를 즐기기에 앞서 참여자들은 뚜렷한 동기를 가지고 해양스포츠를 선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만족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해양스포츠를 참가하는 참여자들의 이용횟수나 이용시간은 참가 동기와 관련이 있는데, 주 1회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참여동기가 가장 높았다. 이는 주 5일 근무에 따라 주말을 이용해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고, 뚜렷한 참여동기를 가지고 해양스포츠를 즐기는 것이다. 또한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보다는 짧은 시간을 통해 해양스포츠를

즐긴 사람들이 참여동기 또한 높았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지된 가치의 차이를 보면, 먼저 이용횟수에 따라서는 차이가 있었으며 주 1회를 이용할 경우 평균값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용시간에 대해서 인지된 가치의 차이가 있었으며, 이용시간이 1시간 30분일 때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직업과의 차이에서는 기타 직업이 가장 높은 평균값을 보였다. 권문배, 류명란(2003)의 연구에서는 학력과 성별에 따라 인지된 가치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안민주(2008)는 일반적 특성에 따라 스포츠관광 참여자의 인지된 가치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과 직업에서 인지된 가치의 차이를 발견하였다.

인지된 가치란 주고받은 것에 대한 상품의 유용성(효용)에 대한 소비자의 전체적인 평가로 서비스나 제품을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그를 통해 가치를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해양스포츠에 대한 인지된 가치가 높다는 것은 참여자들의 해양스포츠에 대한 긍정적으로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해양스포츠를 주 1회이용하는 참여자들은 인지된 가치가 높다. 이는 참여동기와 같이 생각해 볼 때, 해양스포츠를 주 1회 이용하거나 짧은 시간의 이용이라도 뚜렷한 참여동기를 가지고 참여자 본인이 원하는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그 해양스포츠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인지된 가치가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용횟수에 따라서는 재참여와 구전 의도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주 1회를 이용하는 경우 참여 후 행동의도가 가장 높았다. 이용시간과의 관계에서도 재참여와 구전 의도 모두 차이가 있었으며, 이용시간이 1시간 30분을 이용한 참여자들의 참여 후 행동이 가장 높았다.

정종택(2010)의 연구에서는 참여자 특성에 따라서 재방문의도에 차이가

있었으며, 종목에 따라서 재방문의 차이가 있었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서는 재방문의도의 차이는 없었다. 주택웅(2009)은 해양리조트 참여자들의 재방문의사에 대해 참여자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높은 소득의 참여자들에서 재방문 의도가 높았다. 한성호(2006)에서는 기혼이 상대적으로 스쿼시 이벤트에 대한 재참여의도가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재참여 의도가 높았다. 해양스포츠의 활성화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해양스포츠를 이용해야 한다. 새로운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용한 참여자들에 대한 관리 또한 필요하다. 해양스포츠를 한번이라도 이용한 참여자들이 다시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게 된다는 것은 그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그에 따른 가치도 함께 얻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하지만 해양 스포츠를 한번만 이용하고 다시는 이용하지 않는다면 해양스포츠에 대한 발전은 없을 것이다. 또한 해양스포츠를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참여자들을 유인할 수 있다면, 그 또한 해양스포츠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주 1회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재이용의도가 높은 것은 한번 이용으로도 충분히 해양스포츠에 대한 만족 및 가치를 얻었으며, 이는 다시 해양스포츠에 대한 재참여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자들은 해양스포츠에 대한 구전의도를 통해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수를 늘리게 될 것이다.

2. 참여제약과 참여동기

참여제약과 참여동기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독립변수는 참여제약, 종속변수는 참여동기이다. 참여제약이 컨디션/성취감에 미치는 영향은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참여제약에서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컨디션/성취감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참여제약이 높으면 컨디션에 대한 참여동기가 감소한다. 참여제약이 건강/체력에 미치는 영향은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건강/체력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참여제약이 높으면 건강/체력에 대한 참여동기는 감소한다. 참여제약이 즐거움에 미치는 영향은 내재적 제약, 대인적 제약은 즐거움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참여제약이 높으면 즐거움에 대한 참여동기는 감소한다. 참여제약이 기술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 제약, 대인적 제약이 기술발달에 유의한 양의 영향이 있으며, 참여제약이 높으면 기술발달에 대한 참여동기는 감소한다. 참여제약이 무동기에 미치는 영향은 구조적 제약이 무동기에 유의한 음의 영향이 있으며, 참여제약이 높으면 무동기는 증가하게 된다.

Alexandris(2002)와 Carroll & Alexandris(1997)는 여가활동참여에 작용하는 동기와 제약요인의 영향을 실증적 연구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제약과 동기간에는 음의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요인들은 참여자들의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Alexandris 등(2002)은 제약요인과 참여 사이에 동기가 가진 역할에 주목하였다. 즉 제약요인과 참여 사이에는 부적 관계가 성립되지만 이는 참여동기의 강도가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여가활동 참여자는 여가활동 참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약요인에 직면하게 되지만 그 활동에의 참여동기가 클 경우 직면한 제약요인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여 참여함을 시사 하는 타협이론에 근거하면, Alexandris 등(2002)의 주장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김미숙 (2002)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여가스포츠 참여 제약요인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분석 결과 청소년들이 구조적 제약이나 대인적 제약을 인지할 때는 여가에 대한 참여가 약해진다고 하여, 제약이 높으면 참여가 줄어

단다고 밝혔다. 임영삼(2008)은 축구동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의 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내적제약이 즐거움, 건강에 유의한 음의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내적 제약이 높으면 즐거움과 건강에 대한 참여동기가 감소해 이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황인옥 외(2006)의 연구에서는 여가제약이 동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내적 제약과 인간상호간 제약이 내적동기에, 구조적 동기는 외적동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따라서 참여에 대한 제약이 높을수록 참여동기는 감소하는 부적인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도 이미 밝히고 있다(Kay & Jackson, 1991, Nadirova & Jackson, 2000).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는 참여자들은 많은 제약들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제약들은 참여자들의 동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참여자들의 동기를 저해하는 참여제약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참여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제약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참여제약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3. 참여동기와 인지된 가치

참여동기와 인지된 가치와의 관계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참여동기, 종속변수는 인지된 가치로 설정하였다. 참여동기 중 컨디션/성취감, 건강/체력, 즐거움이 인지된 가치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참여동기가 높으면 인지된 가치가 증가한다.

김오성(2010)의 연구에서는 스포츠 관광자의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건강추구, 기분전환, 스포츠, 친목사교에 대한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참여동기

가 높으면 참가자가 인지하는 가치가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또한 김철우(2004)는 참여동기 중 자연미, 기분전환, 스포츠 활동/매력, 친목/사교 등의 요인이 가치에 대한 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은 동기를 가지고 참여한다. 동기가 없는 참여는 없으며, 많은 참여자들이 다양한 참여동기를 보이고 있다. 참여동기가 높은 상태에서 해양스포츠를 참가하고 즐기게 되면 참여자가 인지할 수 있는 가치 또한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가치의 상승은 해양스포츠의 질에 대한 평가를 높일 수 있으며, 향후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게 될 참여자들에 대한 참여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에 대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신종 해양스포츠 종목의 개발 및 서비스질의 향상, 시설(마리나 등)의 확충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4. 인지된 가치와 참여 후 행동

인지된 가치와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인지된 가치는 재참여와 구전의도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지된 가치가 높으면 재참여 의도 및 구전의도가 높아진다.

박찬규(2006)는 골프장의 지각된 고객 가치와 이미지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에서 밝힌 바와 같이 우수성, 경제성, 편리성의 지각가치는 재이용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김용만, 이계석, 서희정(2003)은 스키리조트 이용객의 고객가치요인 중에서 우수성과 편리성이 재구매 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또한 김성혁, 김태구, 이재형(2003)은 이용객의 재 방문의도에 고객가치가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고객가치가 재 방문의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선행연구도 있다(Barbin & Darden,

1995; Rusbult & Farrel, 1983). Chang & Wildt(1994)의 연구에서는 품질이나 가격보다 인지된 가치가 방문의도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라고 밝히고 있다.

Taylor & Baker(1994)는 고객이 지각한 가치가 참가지속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는 지각된 가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객이 희생한 것에 비해 받은 혜택이 충분하다고 지각할 때 지속의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허진영, 최현혁(2008)은 수영장 참여자의 지각가치가 지속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참여자의 지각가치가 지속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수영장 이용자의 지각된 가치는 운동참가지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서비스를 높게 지각할수록 운동참가지속이 높음을 의미한다. 김양중(2002)의 연구에서도 수영참가자의 지각가치가 운동참가지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라고 보고하였다.

이는 지각 된 가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고객이 희생한 것에 비해 받은 혜택이 충분하다고 지각할 때 재이용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따라서 지각가치를 높여 재이용의도를 이끌어낸 후 결론적으로는 참가를 지속할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VI. 결론 및 제언

앞으로의 스포츠(체육) 형태는 바다를 주요 활동공간으로 하는 해양스포츠의 발전이 기대된다. 또한 이러한 해양스포츠 분야의 성장은 해양스포츠의 발전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산업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해양스포츠의 발전 속에 해양스포츠에 참가하는 참여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해양스포츠를 이용함에 있어 저해 요소인 제약을 이용하여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또한 참여동기가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인지된 가치가 향후 참여자들의 재참여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그 결과를 통해 해양스포츠의 발전에 제약점이 무엇인지, 해양스포츠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수행된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결론

첫째,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참여제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특성 중, 이용횟수가 주 2회, 직업은 기타, 월 소득이 높을수록 참여제약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큰 차이는 없지만 참여제약에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참여제약은 이용횟수나, 이용시간에 따라 참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직업이나 소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해양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참여자들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서비스나 기본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이 필

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동기에서는 컨디션, 건강/체력, 즐거움, 기술발달에서 참여자들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났다.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은 컨디션회복이나, 건강·체력이나 즐거움을 위해, 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해양스포츠의 기술발달 등에 따라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했다. 이러한 참여동기는 해양스포츠가 현대인들이 스트레스 해소 및 취미생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참여자들의 인지된 가치가 높다는 것은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를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받게 됨을 나타낸다. 해양스포츠의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의 참여를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를 즐기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가치를 한 번의 혜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혜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종 전진기지 조성을 비롯하여 낡은 제도(법)에 대한 개선이 각각 있어야 할 것이다. 해양스포츠의 참여자들은 지속적인 참여를 통해 참가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며, 지속적인 참가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참여자 자신의 참여욕구와 더불어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느끼는 참여제약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내재적 제약이 참여동기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다. 내재적 제약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하고 가변적이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기 쉬운데, 이는 시간이나 공간의 제약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개인은 일상으로부터의 탈피하고자 하는 동기나 개인의 스트레스해소를 위한 동기 등이 강하다고 할지라도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이는 반대로 일상생활로부터의 탈피하고자 하는 동기가 강한 사람은 시간에 대한 제약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을 제거하거나 줄일 수 있다면, 해양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되고 있다.

셋째, 참여동기는 인지된 가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참여동기가 강한 개인일수록 인지된 가치도 높아진다. 컨디션 회복이나, 건강·체력, 즐거움을 위한 동기가 높은 개인들은 해양스포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 특히, 컨디션회복을 하거나 건강·체력이 좋아지고, 즐거움도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고 있다.

넷째, 해양스포츠를 통해 나온 인지된 가치는 참여 후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지된 가치가 높으면 참여 후 행동, 즉 재참여 의도나 구전 의도가 높아진다. 참여에 대한 동기를 가진 참여자들이 해양스포츠 이용 후 혜택을 얻게 되며, 이러한 혜택을 얻은 참여자들은 지속적으로 해양스포츠에 참여하려 할 것이며, 이는 지속적인 참여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참여뿐만 아니라 주위사람들에게 해양스포츠의 가치를 전달하고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도록 권유하게 된다. 즉, 개인이 얻은 혜택에 대해 주위 사람들과 공유하기를 원하고 이는 구전의로 이어지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2. 제언

이 연구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를 제약하는 요인을 구명하고, 참여제약과 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를 파악하여 해양스포츠의 활성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을 밝히고, 후속연구에서 수행되어야 할 연구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이 연구의 설문대상들은 부산(수영만 요트경기장, 송정해수욕장, 광안리해수욕장, 다대포해수욕장)과 경남[창원시(진해·마산), 사천시, 거제도]을 직접 방문, 각종 해양스포츠를 이용하고 있는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전국에 걸쳐있는 해양스포츠 참여자들이 아닌 일부 지역의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등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특정지역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한 것은 해양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지역마다 다르고, 시설이나 기타 서비스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참여제약이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응답자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특성을 고려한 표본의 수집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 연구에서 사용된 일부 측정도구는 이미 타당성과 신뢰성이 입증된 것이지만, 해양스포츠를 이용하는 참여자들의 특성에 맞는 측정도구의 개발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참여제약과 같은 측정도구는 개인적 특성에 따라 많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에 해양스포츠 참여자를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측정도구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Doctor Dissertation

Research on Constraints,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ost-behavior of Maritime Sports

Ho Lee

Department of Physical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is research has been accomplished with measurement that the researcher collected by visiting Busan(Sooyong Bay Yacht stadium, Song-jung beach, Gwang-an li beach, Dae-de po beach) and Gyung-Nam(Chang-won, Jin-ju, Sa-cheon, Geoje-do), and interviewing 459 people enjoying maritime sports. The definition of reliability is how consistently one's desired object or phenomenon is measured. It can be described as stability, consistency and predictability. Reliability can be used as an indicator that shows how often you get the identical result from repeated experiments. By dispersing data collected from repeated experiments, reliability can be judged completely. There are some method of measurement, such as reexamination, separation, and mental consistency. In this research, reliability has been evaluated by yielding

Cronbach's α in order to examine mental consistency. Completed survey went through exploratory factor analytic technique to be verified its appropriateness. Also, the collected result from 459 people by asking constraint,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articipant has been rearranged by varimax to analyze its important factor. The reliability of survey has been figured by using Cronbach's α .

Besides, it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of the participant's constraint,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ost-behavior. First of all, the census of respondents was analyzed by frequency analysis and it was verified whether the measuring device is adequate and trustworthy. Utilizing the measuring device which meets the requirements above, the participant's constraint, motivation, perceived value, post-behavior were differentiated according to the census. Then, the influence of the participant's constraint on motivation and his motivation on perceived value were analyzed by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influence of perceived value on post-behavior was examined by simple regression analysis. Also, the multicollinearity among independent variables was probed by VIF index.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examined by statistical program SPSS 12.0 is written below.

First, as the result of observing the constraint, motivation, perceived value, and post-behavior based on the distinct characters of each participants, there tend to be more differences of constraints to those who participate twice a week, with jobs in the Et Cetera category, and those with high income. Also, there are no differenc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pulation statistics. However, moderate difference is represented based on constraint. In other words, the participation could be constrained based on the frequency and duration of the activity, and it differs by the occupation and income of t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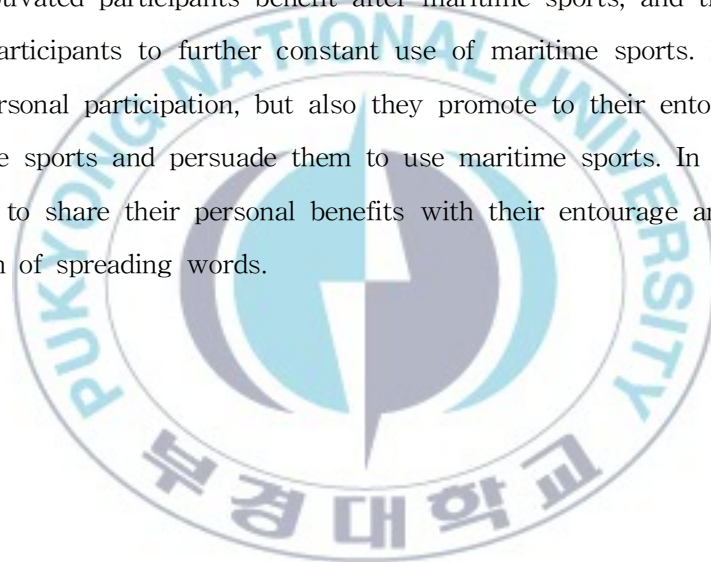
participants. This clearly demonstrates that in order to vitalized the maritime sports, the developer needs to understand the character of the participants, and secure the basic facility and service that meet the needs of the participants. The motivation differs by the characteristic of condition, health/fitness, pleasure, and technical development. The participants of maritime sports took advantage of the sports to recover their fitness, and pursue pleasure and health. These motivations demonstrate that maritime sports are settling in the lives of modern people as leasure activity and as means to relieve stress. The high perceived value of maritime sports indicates that the participants receive profit and benefit through maritime sports. Gaining benefit and profit from participating in maritime sports means that the participants are enjoying the sports and it helps them to relieve stress. Therefore, these values should not be wasted as a one time benefit but it should be continuously beneficial. The participants of the maritime sports will fulfil their goal through continuous participation. One's desire to participate as well as environmental support to continuously visit maritime sports are necessarily needed to accomplish continuous participation, which does not simply be achieved.

Second, looking at how restrictions influence motivation in participating, internal restriction hugely disrupts motivation in participating. Internal restriction is relatively unstable and variable, therefore it is easily changed through time. This means a person who feels limited by time or place can not participate in sports activity, even though the person has a strong motivation to get away from reality or to relieve stress. On the contrary, if those who have great motivation to escape from daily routine can eliminate or decrease time restraints, they will be able to participate in maritime sports.

Third, motivation affects perceived value and a person with stronger

motivation has higher perceived value. Individuals with a high level of motivation, such as recovering condition, health and stamina, pleasure, will benefit from maritime sports, particularly recover condition, have better health and stamina, and enjoy the pleasure from maritime sports.

Fourth, perceived value derived from maritime sports affects behaviour after participation, and when perceived value is high, behaviour after participation, i.e. intention of re-participation or spreading words, becomes higher. Motivated participants benefit after maritime sports, and these benefits lead the participants to further constant use of maritime sports. Not confined only to personal participation, but also they promote to their entourage values of maritime sports and persuade them to use maritime sports. In other words, they want to share their personal benefits with their entourage and this leads to intention of spreading words.



참고문헌

- 강석희(1999). 여가활동의 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 고재곤, 왕석우(2005). 레저스포츠 참여고객의 특성분석에 관한 연구 - 강원도지역을 대상으로 -. 한국스포츠리서치, Vol. 16, No. 2, pp. 261-275.
- 구우영(1996). 2002년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부산해양스포츠 발전방안. 동의대학교 스포츠과학논집, 제 3호.
- 권문배, 류명란(2003). 여가관여도가 여가스포츠 상품 및 서비스의 인지된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2(3), 367-375.
- 권오기(2003). 할인점 고객만족의 영향요인. 경북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진(2001). 배드민턴 동호인들의 참여동기 요인. 한국체육학회지 40(2), 277-285.
- 김경렬(2000). 한국사회체육발전방향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김규호(1986). 도시민의 여가의식 및 형태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근영(1992). 운동심리학 입문. 서울: 보경문화사.
- 김근오(2010). 댄스스포츠 비참여자의 참여제약이 참여욕구 및 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기출(2006). 공공스포츠 시설의 서비스 품질만족이 재구매 의도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 김미숙(2002). 청소년 여가스포츠 참여 제약요인. 한국여가레크레이션학회지, 23, 17-27.
- 김범모(2003). 택배 서비스 품질과 고객만족의 관계 연구. 대학원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홍익대학교.
- 김빛(2009). 중년 골퍼의 참여제약, 동기 및 지속여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김성관(2006). 재래시장 상인들의 여가참여종도와 여가제약요인의 분석. 미간행

-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대학원.
- 김성혁, 김태구, 이재형(2003). 패밀리 레스토랑 이용객의 재방문의도 결정요인. **관광학연구**, 27(1), pp.201-220.
- 김성훈(2006). 수상레저스포츠 선택속성 및 구매행동 모형.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 대학원.
- 김정희(1997). 가정주부의 여가제약과 여가만족, 가족기능,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체육학회지**, 42(3), 391-400.
- 김양종(2002). 개인적 운동 상황이 상업체육시설 참가의 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15(2), 289-290.
- 김오성(2010). 스포츠관광자의 참가동기, 선택속성, 인지된 가치, 관광만족, 재참가의도 및 구전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오성(2010). 스포츠관광자의 참가동기, 선택속성, 인지된 가치, 관광만족, 재참가의도 및 구전의도 간의 구조적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대학원.
- 김외숙(1991). 도시기혼여성의 여가활동참여와 여가장애.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김용만, 이계석, 서희정(2004). 프로농구구단의 서비스품질과 관람만족, 관람태도, 재관람의도 및 타인추천의도의 인과관계. **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16(1), 89-104
- 김윤규(1997). “댄스스포츠와 사회교육”, 한국댄스스포츠연맹. **인천대학교 스포츠과학 연구소**. 11-16
- 김종동(2008). 태권도 수련생의 참여·지속·중단 동기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김준, 이근모, 김인형(2007). 해양스포츠 참여자의 재미요인과 참여재약이 몰입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20(2), 218-219.
- 김철우(2004). 스포츠관광의 참가동기. 관광지 속성평가가 재참가 및 전환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 김현나(2006). 댄스스포츠 참여자의 여가제약과 여가지속의 관계.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0(2), 115-126.
- 김형용(2004). 레저스포츠 참여동기 및 제약과 재미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김희은(2006). 생활무용 참여자의 여가 참여만족과 제약에 관한 질적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경남대학교 대학원.
- 노은진(2007). 수영참여자의 지각가치 및 참가동기가 참가지속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류정무, 이강현(1990). **스포츠 심리학**, 서울: 민음사. pp.251.
- 문영희(2003). 볼링참여자의 참여동기가 몰입경험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용인대학교 교육대학원.
- 문태영(2007). 해양스포츠 센터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재방문 및 추천의도간의 관계, **한국스포츠리서치**, 18(3), 647-658.
- 민병기(1997). 성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동기와 만족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박강수, 김형순, 김영태(2000). **호텔 · 외식 · 마케팅**. 서울: 도서출판 석정.
- 박상규(2008). 도시마케팅 전략을 위한 해양관광레저스포츠 참여동기, 제약, 도시브랜드와 관광만족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 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 박원임(1976). 도시주부의 여가생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시 주부를 중심으로.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 박찬규(2006). 골프장의 지각된 고객가치와 이미지가 재이용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45(3), 335-343.
- 배영훈(2007). 골프 참여자의 스포츠참여동기와 운동정서와의 관계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4), 2135-2148.
- 백재근(2008). 수상레저스포츠 참여자의 위험인지, 몰입, 충성도 및 재참여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 성수경(2007). 스포츠센터 조직구성원의 여가제약과 여가활동 관여도가 여가참

- 여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 소진수(2009). 모험스포츠 참여자의 참여동기에 따른 몰입경험과 참여지속의지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안동대학교 대학원.
- 송원익(2004). 도시근로자의 여가참여형태 및 제약이 여가만족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안민주(2008). 스포츠관광 참가자의 인지된 가치·만족도 및 재참가의도·전환의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 안창규(1999). 스포츠 소비자의 준거집단 요인과 스포츠 참여동기가 스포츠 참가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학회지. 38(4), 759-771.
- 양명환(1994). 대학생들의 신체활동 참여동기에 관한 연구. 한국스포츠심리학회지, 5(2), 107-122.
- 오효위(2007). 사회·경제적인 요인에 따른 레저이벤트 참여제약요인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강원대학교.
- 원현중(1998). 성인근로자의 여가활동 참여동기와 제약요인에 관한 기본연구. 한국체육학회지. 37(2), 369-386.
- 윤상용(2006). 태권도 수련자의 동기요인 분석을 통한 체육관 운영전략의 제고.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광수(2003). 모험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 스포츠몰입, 참여 후 행동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 이상환, 이재철(2001). 서비스마케팅. 서울: 삼영사.
- 이승구(2001). 레포츠 참여 제약 요인에 관한 연구. 관광학술 정기 발표회 논문집. 189-197.
- 이유재(1999). 서비스마케팅. 서울: 학현사.
- 이재빈(2010).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해양스포츠 전진기지 활성화 전략에 관한 연구.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경대학교 대학원.
- 이재빈, 지삼엽, 배영훈(2009). 마리나 이용객의 시설만족이 방문 후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443-450.
- 이재희(2000). 댄스 스포츠 참여자들의 참여동기와 기술 유능감에 따른 여가인

- 지 및 관여도 분석.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이정호(2010). 해양스포츠 참가자의 참여동기와 스포츠 몰입, 참여만족 간의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임번장(1996). 스포츠사회학 개론. 서울: 동화문화사.
- 임영삼(2008). 축구동호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에 있어서 여가제약요인이 참여동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학회지, 32(3), 97-107.
- 전재균, 최도석, 심미숙(2008). 해수욕장 이용객의 선택속성이 전반적 만족도 및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부산지역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0(5), 2845-2857.
- 정용각(1997). 여가운동 참가자의 스포츠 참여동기, 각성추구, 정서의 요인이 스포츠 몰입행동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 정종택(2010). 스포츠이벤트 참가자의 만족도와 관광이미지가 재방문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신대학교 대학원.
- 정호권(2006). 레저 활동 제약요인이 참여 및 지속여부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골프참가자를 중심으로. 서비스경영학회지, 7(4), 59-82.
- 조경훈(2007). 익스트림 스포츠 참여자의 라이프스타일 유형이 몰입도, 충성도, 재참여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원.
- 조성희(2001). 도시 주부의 댄스스포츠 참가동기와 참가정도 및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체육과학대학원.
- 조연희(2003). 골프 활동의 선호와 참여에 제약요인이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학원.
- 조현영(1994). 시설노인의 운동참가가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주태웅(2009). 해양리조트 마케팅믹스에 따른 소비자만족도 및 재방문의사에 관한 연구.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주현식(2001). 컨벤션 참가동기, 개최지속성, 만족 및 재참가 의도간의 영향 관계.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대학원.
- 지삼엽(2003). 해양스포츠 대중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요인분석. 한국체육학회지,

42(6), 241-257.

- 지삼업(2006). **해양스포츠 자원론**, 서울: 대경북스
- 지삼업(2008). **마리나 관리론**, 서울: 대경북스
- 지삼업(2010). 스포츠형 마리나의 활동환경 및 운영활성화를 위한 속성평가 비교분석.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2(5B), 2917.
- 최병렬(2008). **생활체육 참여동기가 여가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순천향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정도(2007). 수상레저스포츠시설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 재이용 및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체육학회지**, 31, 429-439.
- 표영희(1997). **기혼여성의 가족생활주기와 여가활동과 여가제약과의 관계**. 미간행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한경숙, 유병렬(2003). 에어로빅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여성들의 제약인지에 관한 연구. **한국레크레이션교육학회지**, 4(1), 1-7.
- 한성호(2006). **스쿼시 이벤트 서비스유형이 참가자의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 미간행 석사학위논문, 한국서울시립대학교 교육대학원.
- 허진영, 최현혁(2008). 수영자의 수영참여자의 지각가치 및 참가동기가 운동지속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17(1), 235-246.
- 황인남(2000). 여고생의 여가제약 지각, 자아정체감과 여가스포츠 참가 간의 인과분석. **한국체육학회지**, 39(2), 831-844.
- 황인옥, 이봉구, 정호권, 이승구(2006). 지역 축제참여에 있어서 제약요인과 동기의 경향에 관한 연구: 춘천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국호텔경영학회**, 15(4), 163-176.

Ajzen, I., & Driver, B. L.(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Prenticehall, Englewood Cliffts. N. J.

Aldermam, R. B.(1974).Psychologicalbehaviorinsport.Philadelphia:saunders.

Alexandris, K., Tsorbatzoudis, C., & Grouios, G.(2002). Perceived constraints on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vestigating their relationship with

-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a motiv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4(3), 233-252.
- Atkinson, J. W.(1965). *An introduction to motivation*. NY: D. Van Nostrand Company.
- Backman, S. J., & Crompton, J. L.(1990).Differentiating between active and passive discontinues of two leisur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2, 197-212.
- Barbin. B. J., & Darden, W. R. (1995). Consumer self-regulation in a retail environment. *Journal of Retailing*, 71(1), 47-70
- Barnett, L.(1980). The social psychology of children's play: Effects of extrinsic rewards of free play and intrinsic motivation. In S. Iso-Ahola(Ed.),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s on leisure and recreation* (pp, 138-170).
- Biddle, S.(1993). Motivation and participation in exercise and sport. In the 8th word congress of sport psychology proceeding. Lisbon. Portugal, 22-42
- Blodgett, J. G.(1994). The effects of perceived justice on complaints repatronageintentionsandnegativeword-of-mouthbehavior.*Journalof Consumersatisfaction,DissatisfactionandComplainingBehavior*,7.
- Bojanic, D. (1996), "The Smoking Debate: A Look at the Issues Surrounding Smoking Bans in Restaurants," *Hospitality Research Journal*, 20(1), 27-38.
- Bolton, R. N. & Drew, f. H. (1991). A multi-stage model of consumer assessment of service quality and valu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7(1).
- Boothby, J., Tungatt, M. F., & Townsend, A. R. (1981). Ceasing Participation in sports activity: Reported reasons and their implic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1-14.

- Bradley, W., & Mannell, R. C.(1984).Sensitivity of intrinsic motivation reward procedure instruc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 10, 426-431.
- Caldwell, L. L., & Weissinger, E.(1994).Factor influencing free tire boredom in a sample of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ies. *The rapeutic recreation Journal*, 28, 18-24.
- Carroll, B., & Alexandris, K. (1997). Perception of constraints and strength of motivation: Their relationship to recreational sport participation in Gree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3), 279-299.
- Chang, T., Wildt, R. W.(1994). Price, product in formation and purchase intention relationships with service providers. *Journal of Retailing*, 73(1), 15-37
- Coleman, D.(1993). Leisure based social support, leisure disposition, and health.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5, 350-361.
- Cratty, B. J.(1983). *Psychology in comtemporary sport: Guidelines for coache sand atletes*. Engle wood Cliffs, NJ: Prentice-Hall.
- Crawford, D., & Godbey, G.(1987). Reconceptualizing barriers to family leisure. *Leisure Science*, 9(2), 119-127.
- Crawford, D., Jackson, E., & Godbey, G. (1991). A hierarchical model of leisure constraints. *Leisure Science*, 13(4), 309-320.
- Csikszentmihalyi, M.(1975). *Beyond boredom an anxiety*. San Francisco :Jossey-Bass.
- Csikszentmihalyi, M., & Csikszentmihalyi, I. S.(1988). *Optimal experience: Psychological studies of flow in consciousnes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eci, E. L.(1980).*The psychology of self-determination*. Lexington, MA :Health.
- Deci, E. M., Ryan, R. L. (1985). *Intrinsic motivation and self-determination in human behavior*. NY: Plenum Press.

- Deci. E. L. (1975). *Intrinsic Motivation*, New York: Plenum.
- Duda, J. L.(1989). Goal Perspectives, Participation and Persistence in Sport.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0(1)
- Engel, J. F., Blackwell, R. D., & Miniard, P. W. (1995). *Consumer Behavior*, NY: Dryden Press.
- Ewing, M. E. (1981). Achievement orientations and sport behavior of males and fema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in, University of Illinois at Urabana-Champaign.
- Festinger, L.(1957).A theory of cognitive dissonance. Evanston, IL: Row, Peterson.
- Fortier, M. S., Vallerand, R. J., Briere N. M., & Proventcher, P.(1996). Competitive and recreational sport structures and gender: A test of their relationship with sport motiv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16(2), 113-120.
- Francken, D.A., & Van Raaij, W.F.(1981). Satisfaction with leisure time activitie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13, 337-352
- Galbraith, J. K.(1967). *The new industrial state*. Houghton Mifflin CO.,
- Gill, D. L., Gross, J. B., & Huddleston, s.(1983). Participation motivation in youth sport.
- Goodale L.T., & Witt A.P. (1989). Recreation Non-Participation and Barriers to eisure. In Jackson E.L., BurtonL.T. (Eds).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 p. 421-449.
- Gould, D., Feltz, D., Horn, T., y Weiss, M. (1981). Reason for attrition in competitive yortn swimming. *Journal of Sport Behavior*.
- Graef, R., Csikszentmihalyi, M., & Gianinno, S. M.(1983). Measuring intrinsic motivation in everyday life. *Leisure Studies*, 2, 155-168.
- Grewal, D., Monroe, K.B., & Krishnan, R. (1998). The effects of price-comparison advertising on buyers' perceptions of acquisition

- value, transaction value and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Marketing*, 62 (Apr), 46-59.
- Harter, S.(1981). a model of intrinsic mastery motivation in children in individual difference and development change in a Collins.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4, 215-255.
- Hartline, M. D., & Jones, K. C. (1996). Employee performance cues in a hotel service environment: Influence on perceived service quality, value, and word-of-mouth intentions. *Journal of Business Research*, 35(3), 207-215.
- Henderson, K. A., Stalnaker, D. and Taylor, G. (1988). The relationship between barriers to recreation and gender-role personality traits for women. *Journal of Leisure science*. 20: 69-80.
- Iso-Ahola, S. E., Jackson, E., & Dunn, E. (1994). Starting, ceasing, and replacing Leisure activities over the span. *Journal Research*, 26, No3, 227-249.
- Jackson, E. (1988). Leisure constraints: A survey of past research. *Leisure Science*, 10, 203-249.
- Jackson. E. L., & Burton. T. L. (1989). *Understanding Leisure and Recreation: Mapping the past, Charting the Future*. Venture Publishing. State College, P. A.
- Johnsgard, K. (1985b). The motivation of the long distance runner: II. *Journal of Sports Medicine*, 25, 135-139
- Jayanti, L. P., & Ghosh, A. K. (1996). Service value determination: An integrative perspective. *Journal of Hospitality and Marketing*, 34(4), 5-25.
- Kay, T., & Jackson, G. (1991). Leisure despite constraint: The impact of leisure constraints on leisure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3, 301-313.
- Kelly, J. & Godbey, G. (1992). *Sociology of Leisure*. State College: Venture.
- Kenyon, G. S. & Schultz, Z. (1970), "Patterns of involvement in sport: A

- stochastic view", In G. S. Kenyon and T. M. Grogg(eds.),
Contemporary Psychology of sport, Chicago : Athletic Institute.
- Klint, K. A., & Weiss, M. R.(1987). Perceived competence and motives for
participating in youth sports: A test of Harter's competence
motivation theory. *Journal of Sport Psychology*, 9, 55-65.
- Laverie, D. A.(1998). Motivations for ongoing participation in a fitness activity.
Leisure Science, 20(4), 277-302.
- Lepper, M. R., & Green, D.(1976). On understanding over justification: A replay
to Reiss and Sunshine sk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3, 25-35.
- Maddi, S., & Kobasa, S.(1981). Intrinsic motivation and health. In H. Day(Ed.),
Advances in intrinsic motivation and aesthetics, pp. 299-321. Sew
York: Plenum.
- Mahon, M. J.(1994). The use of self-control techniques to facilitate
self-determination skills during leisure in adolescents and young
adults with mild and moderate mental retardation. *The rapeutic
Recreation Journal*, 28, 58-72.
- Mannell, R. C.(1999). Leisure experience and satisfaction. In E.L & T. L.
Burton(Eds.). *Leisure studies Prospects for the twenty-first center*,
235-251.
- Mannell, R. C., & Zuzanek, J.,& Larson, R.(1988).Leisure states and "flow"
experience: Testing perceived freedom and intrinsic motivation
hypothesi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0, 289-304.
- Markland, D., & Hardy, L.(1993). The exercise motivation inventory;
Preliminary development and validity of a measure of individuals'
reasons for participation in regular physical exercise.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 15, 289-296.
- McGuire, F. A. (1984). A factor analytic study of leisure constraints in

- advanced adulthood. *Leisure science*, 6, 313-326.
- Nadirova, A. and Jackson, E. L. (2000). Alternative criterion variables against which to assess the impacts of constraints to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32(4), 396-405.
- Naylor G., Frank K. E. (2001). The effect of price bundling on consumer perceptions of value, *Journal of Service Marketing*, 15(4), 270-281.
- Oh, H. M.(1999). Service Quality, customer satisfaction, and customer value: A holistic perspective. *Hospitality Management*, 18, 67-82.
- Oldridge, N. B. (1982). Compliance & exercise in primary or secondary prevention of coronary heart disease Prevail. (Ed), 11.
- Oman , R., & McAuley, E.(1993). Intrinsic motivation and exercise education. Philadelphia : W. B. Saunders Co. behavior, *Journal of Health Education-July/august*, 24(4), 232-238.
- Parasuraman, A. & Grewal, D. (2000). The Impact of Technology on the Quality-Value-Loyalty Chain: A Research Agenda.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8, 168-174.
- Pellertier, L. G., Fortier, M. S. Vallerand, R. J., Tuson, K. M., & Briere, N. M.(1995). Toward a new measure of intrinsic motivation, extrinsic motivation, and motivation in sport: the sport motivation scale(SMS). *Journal of sport & Exercise Psychology*, 17, 35-53.
- Peterson, C. O., Gunn, SW.(1984). *Therapeutic Recreation Program Design: Principlesand Practices*. EnglewoodCliffs, NJ: Prentice-Hall.
- Petrick, J. F. (1999). An examin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golf travelers'satisfaction,perceived value and loyalty and their intentions to revisit. Doctorial Dissertation, Clemson Universit
- Petrie, B. M.(1971). Achievement orientations in adolescent attitudes toward play, *International Review of Sport Sociology*, 6, 89 - 99.
- Raymore. L., Godbey. G., Crawford. D., & von Eye. A(1993). Nature and

- process of leisure constraints: An empirical test. *Leisure Sciences*, 15: 99-113.
- Revelle, W.(1993). Individual differences in personality and motivation : 'Non-cognitive' determinants of cognitive performance. In A Baddeley & LWeiskrantz(Eds.), *Attention : selection*, 346-372.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 Romsa, G., & Hoffman, W. (1980). An application of non-participation data in recreation research: Testing the opportunity theory. *Journal of Leisure science*, 12, 321-328.
- Rusbult, C. E., & Farrell, D. (1983). A longitudinal test of the investment model: The impact on job satisfaction, job commitment, and turnover of variations in rewards, costs, alternatives, and investments.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8, 429 - 438.
- Sage, G.H.(1977). *Introduction to motor behavior: A neuro psychological approach*(2nd ed.) Boston..
- Samdahl, D.M., & Jekubovich, N.J. (1997). A critique of leisure constraints: Comparative analyses and understandings.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9(4), 430-452.
- Sweeney, J. C., & Soutar, G. N. (2001). Consumer perceived value: The development of a multiple item scale. *Journal of Retailing*, 77(2), 203-220.
- Sweeney, J. C., Soutar, G. N., & Johnson, L. W. (1997). Retailer service quality and perceived value: A comparison of two model. *Journal of Retailing and Consumer Services*, 4(1), 39-48.
- Taylor, S. A., & Baker, T. L.(1994). An assessmen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ervice quality and customer satisfaction in the formation of customers purchase intentions. *Journal of Retailing*, 70(2), 163-178.
- Vallerand & Bissonnett, R (1992) Intrinsic, extrinsic, and motivational styles as

- predictors of behavior: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 599-620.
- Vallerand, R. J., Losier, G. F., & Bouque, P. E. (1992). A motivation model of leisure participation in the elderly, *Journal of Psychology*, Vol. 127, No. 2, 153-157.
- Wankel, L. M. (1993). The importance of enjoyment to adherence and psychological benefits from physical activity, *International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4, 151-169.
- Weissinger, E., & Bandalos, D. L., (1995). Development, reliability and validity of a scale to measure intrinsic motivation in leisur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7(4), 379-400.
- Weissinger, E., & Iso-Ahola, S. E. (1984). Intrinsic leisure motivation, personality and physical health. *Society and Leisure*, 7, 217-228.
- White, R. (1959). Motivation reconsidered: The concept of competence. *Psychological Review*, 66, 297-333.
- White, T. H. (1975). The relative importance of education and income as predictors in outdoor recreation participation. *Journal of Leisure Research* 7, 191-199.
- Witt, P. (1992). The intersection of benefits and constraints. *Leisure Constraints Newsletter*, 9, 5-6.
- Witt, P. A., & Goodale L.T. (1981). The Relationships Between Barriers to Leisure Enjoyment and Family stages. *Leisure Sciences*. 4(1), 29-49.
- Woodruff, R. B. (1997), "Customer value: The next source for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the Academy of Marketing Science*, 25(2), 139-53.
- Woodruff, R. B., & Gardial S. F. (1996). *Know your customer: new approaches to customer value and satisfaction*. Malden, Mass: Blackwell.
- Zeithaml, V. A. (1988). Consumer perceptions of price, quality and value: A

mean-end model and synthesis of evidence. *Journal of Marketing*, 52, 2-22.



부록 : 설 문 지

안녕하십니까?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설문지는 “해양스포츠 참여계약, 참여동기, 인지된 가치, 참여 후 행동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설문 문항은 정답이 없으며 평소 생각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 제 13조에 의거」 하여 학문적인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을 하지 않을 것임을 밝혀드립니다.

질문의 응답에는 맞고 틀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평소 귀하가 해양스포츠 각종(마리나·보트계류장·다기능어항) 전진기지시설을 이용하면서 느꼈던 개인적인 생각을 있는 그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한시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경대학교 대학원 체육학과 박사과정
이 호

지도교수: 지 삼 업

※ 다음은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되는 번호에 (V)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하의 성별은?

- ① 남자 ② 여자

2. 귀하의 연령은? _____세

3. 귀하의 결혼 여부는 ?

- ① 기혼 ② 미혼

4. 귀하의 월 소득(소득이 없는 경우 가계수입. 예: 전업주부, 학생)은?

- ① 100만 원 이하 ② 101~200만원 미만 ③ 201~300만원 미만
④ 301만원~400만원미만 ⑤ 401만원~500만원미만 ⑥ 600만원 이상

5. 현재가 귀하가 하고 있는 해양스포츠는?

- ① 윈드서핑 ② 스포츠잠수(스킨다이빙·스쿠버다이빙) ③ 수상스키
④ 수상오토바이 ⑤ 요트 ⑥ 서핑 ⑦ 기타()

6. 귀하의 주당 몇 회의 해양스포츠 운동을 하십니까?

- ① 주 1회 ② 주 2회 ③ 주 3회 ④ 주 4회 ⑤ 주 5회 ⑥ 6회 이상

7. 귀하는 1회의 해양스포츠 활동시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① 30분 미만 ② 30분~1시간 이내 ③ 1시간~1시간 30분 이내
④ 1시간 30분~2시간 이내 ⑤ 2시간 이상

8. 귀하의 해양스포츠 경력은? (_____년 _____개월)

9. 귀하의 직업은?

① 전문직

(의사, 약사, 판사, 변호사, 교수, 교사, 연구원, 종교인, 회계사, 방송인 등)

② 전문 관리직

(기업경영주 및 부장급이상, 고급 4급 공무원이상, 자영업체 경영자, 군 장성 등)

③ 사무직(회사원, 은행원, 일반 공무원, 직업군인, 직업경찰 등)

④ 근로직(생산직, 운전기사, 전진기자 기능공 등)

⑤ 주 부(전업주부)

⑥ 학 생(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⑦ 자영업

⑧ 무 직

⑨ 기 타 _____

I. 다음은 해양스포츠 참여제약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여주십시오.

질문 내용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줍음을 잘 타서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시작하기가 부담스럽다.		1	2	3	4	5	6	7
2. 가족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하고 싶다		1	2	3	4	5	6	7
3.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한다면 친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는 해양스포츠 활동을 선택할 것이다.		1	2	3	4	5	6	7
4. 친한 사람들이 함께 해양스포츠를 할 수 없다면 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6	7
5. 친한 사람들이 바빠서 함께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시작하기 어렵다		1	2	3	4	5	6	7
6. 나와 친한 사람들은 교통편이 좋지 않아 나와 함께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하기 어렵다.		1	2	3	4	5	6	7
7. 다른 일에 얽매어 있을 때 새로운 해양스포츠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않는다.		1	2	3	4	5	6	7
8. 해양스포츠 활동의 시설이 편리하지 않다면 새롭게 해양스포츠 활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6	7
9. 시간이 없다면 나는 새로운 해양스포츠 활동을 시작할 것 같지 않다.		1	2	3	4	5	6	7

II. 다음은 해양스포츠 참여동기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여주십시오.

질문 내용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1. 해양스포츠를 하면 재미있다		1	2	3
2. 해양스포츠를 할때 쾌감을 느낀다		1	2	3
3. 해양스포츠를 하면 활기찬 기분을 느낀다.		1	2	3
4. 해양스포츠를 하면 체력이 향상된다고 느낀다.		1	2	3
5. 해양스포츠를 하고 나면 상쾌하다.		1	2	3
6. 해양스포츠를 계속 할지 나도 모르겠다.		1	2	3
7. 해양스포츠를 수행했을 오는 만족감 때문이다.		1	2	3
8. 해양스포츠를 하면 사람들을 관심을 받을 수 있다.		1	2	3
9. 해양스포츠를 하면 멋진 몸매를 만들 수 있다.		1	2	3
10. 해양스포츠에 대한 회의를 느낀다.		1	2	3
11.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다.		1	2	3
12. 성취감을 느낀다.		1	2	3
13. 해양스포츠를 하면 사람들을 사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1	2	3
14. 해양스포츠를 하면 컨디션이 좋아진다.		1	2	3
15. 해양스포츠는 나에게 안 맞다.		1	2	3
16. 해양스포츠는 체중조절에 도움이 된다.		1	2	3
17. 해양스포츠는 일상생활 하는데 도움이 된다.		1	2	3

질문 내용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8. 해양스포츠를 하고 나면 몸이 개운해 진다.		1--2--3--4--5--6--7		
19. 해양스포츠를 하면 다른 사람과 편하게 어울릴 수 있다.		1--2--3--4--5--6--7		
20. 해양스포츠를 규칙적으로 하면 건강해 질 것이다.		1--2--3--4--5--6--7		
21. 해양스포츠를 하면 매사에 자신감이 생긴다.		1--2--3--4--5--6--7		
22. 해양스포츠를 하면 가끔 회열감을 느낀다.		1--2--3--4--5--6--7		
23. 해양스포츠를 하면 완전히 몰입한다.		1--2--3--4--5--6--7		
24. 해양스포츠를 하면 사람들과 사교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긴다.		1--2--3--4--5--6--7		
25. 해양스포츠는 처음에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		1--2--3--4--5--6--7		
26. 해양스포츠는 나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1--2--3--4--5--6--7		
27. 해양스포츠를 하면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배운다.		1--2--3--4--5--6--7		
28. 해양스포츠를 하면 명예 또는 명성을 얻는다.		1--2--3--4--5--6--7		
29. 해양스포츠의 새로운 기술 때문에 재미있다.		1--2--3--4--5--6--7		
30. 해양스포츠의 새로운 운동방법을 배울 수 있다.		1--2--3--4--5--6--7		
31. 해양스포츠를 하면 흥분 감을 느낀다.		1--2--3--4--5--6--7		
32. 해양스포츠의 기술이 점차 발달할수록 즐겁다.		1--2--3--4--5--6--7		
33. 해양스포츠가 아무런 의미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다.		1--2--3--4--5--6--7		
34. 해양스포츠는 친구들과 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1--2--3--4--5--6--7		

IV. 다음은 해양스포츠 인지된 가치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여주십시오.

질문 내용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해양스포츠 참가는 탁월한 선택이었다.		1--2--3--4--5--6--7		
2. 해양스포츠 참가를 위한 투자(비용, 시간 등)은 아깝지 않다.		1--2--3--4--5--6--7		
3. 해양스포츠 참가는 나에게 즐거움을 안겨준다.		1--2--3--4--5--6--7		
4. 해양스포츠 참가는 생각만큼 가치가 있다.		1--2--3--4--5--6--7		
5. 해양스포츠 참가로 인해 나의 삶의 질이 향상 되었다		1--2--3--4--5--6--7		

V. 다음은 해양스포츠 행동에 관한 문항입니다. 질문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되는 번호에 체크(✓)를 하여주십시오.

질문 내용	동의 정도	전혀 그렇지않다	보통 이다	매우 그렇다
1. 다시 참여할 것이다.		1--2--3--4--5--6--7		
2. 다시 참여하는 것이 가능하다.		1--2--3--4--5--6--7		
3. 확실히 다시 참여할 것이다.		1--2--3--4--5--6--7		
4. 다시 참여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1--2--3--4--5--6--7		
5.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것이다.		1--2--3--4--5--6--7		
6. 다른 사람에게 좋게 이야기 할 것이다.		1--2--3--4--5--6--7		
7.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이다.		1--2--3--4--5--6--7		

끝.